

조헌(趙憲)의 울원구곡(栗原九曲)과 울원구곡시(栗原九曲詩)

李 相 周*

-
- I. 머리말
 - II. 구곡(九曲)과 구곡시(九曲詩)의 전통
 - III. 울원구곡(栗原九曲)의 명칭과 위치의 확인과정
 - IV. 울원구곡 각각의 명칭과 그 경관
 - V. 울원구곡시 분석
 - VI. 맺음말
-

I. 머리말

구곡(九曲)과 팔경(八景)은 동양의 2대 산수문화이며, 구곡시(九曲詩)와 팔경시(八景詩)는 동양의 2대 산수문학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한다. 한국의 구곡과 구곡시에 대한 연구는 이런 시대 사조에 부응 병진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구곡과 구곡시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구곡문화’를 국민적 ‘문화교양’으로 제고 확산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필자는 ‘구곡문화(九曲文化)’가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1999년부터 연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구곡과 구곡시를 새로 발굴했다. 따라서 이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설정하여 ‘구곡문화관광특구’라 명명하기도 했다.¹⁾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구곡과 구곡시를 발

* 청주대 강사

- 1) 필자는 1999년 부터 충북의 ‘구곡문화권(九曲文化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마침 정부가 2001년을 ‘한국방문의 해’와 ‘지역문화의 해’로 선포한 바, 그 취지에 부응하고자, 이를 ‘구곡문화관광특구(九曲文化觀光特區)’라 명명했다. 이는 ‘산수관광(山水觀光)’과 ‘문화관광(文化觀光)’을 병행할 수 있는 문화관광권으로, 구곡(九曲)의 산수(山水)를 유람하며 구곡(九曲)에 대해 읊은 한시(漢詩)인 구곡시(九曲詩)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관광구역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구곡의 분포도를 살펴볼 때, 대개 어느 한 지역에 1개의 구곡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종종 찾아 볼

굴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조헌(趙憲 1544~1592)이 지은 구곡시도 그 과정에서 보게 되었다.

조헌이 지은 구곡시는 조헌의 문집인 중봉집(重峰集)에 「유율원차무이도가운(遊栗原次武夷棹歌韻)」이라 되어있다. 이에 의거하여 ‘율원구곡(栗原九曲)’과 ‘율원구곡시(栗原九曲詩)’라 명명한다. 그런데 구곡의 명칭과 그 위치에 대한 기록은 없다. 시 자체만으로도 그 시가 담고 있는 정경인 시경(詩境)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구곡을 읊은 시인 만큼, 현지 사정을 정확히 알면 훨씬 더 효과적인 감상을 할 수 있다. 또한 구곡문화관광지로 홍보개발하려면 일차적으로 그 위치와 명칭을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한다. 그래서 필자는 시의 내용을 토대로 구곡 각각의 명칭과 그 위치를 밝히기 위해, 현지를 답사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중봉 조헌은 세간에 임진란 때 활약한 의병장으로 널리 알려졌다. 조헌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다. 기존의 연구에서 그의 생애와 사상등 그리고 임진란 때 그의 활동상에 대해 다루었다²⁾. 박병헌(朴炳憲)이 시에 대한 연구를 했으나³⁾ 율원구곡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율원구곡시에 대해서는 농협대 교수를 지낸 금기(琴基)가 「중봉(重峯) 조헌선생이 후율정사(後栗精舍)에서 읊은 율원구곡시의 새로운 음미」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도 율원구곡의 위치를 확인하

수 있다. 그런데 충북지방엔 속리산계(俗離山系) 남한강인 달천강(獐川江) 중·상류 100여리 사이에 9개의 구곡이 설정돼있다. 나는 이를 특별한 하나의 문화권으로 설정하여 그 명칭을 ‘구곡문화관광특구’라 명명한 것이다. ‘구곡문화관광특구’내에 확인된 구곡은 현재 9개소가 있는데, 하류로부터 그 명칭을 들어본다. 괴산군에 고산구곡(孤山九曲)·갈은구곡(葛隱九曲)·연하구곡(煙霞九曲)·쌍계구곡(雙溪九曲)·선유구곡(仙遊九曲)·화양구곡(華陽九曲)이 있다. 그리고 청원군에 서계구곡(西溪九曲)·옥화구곡(玉華九曲)이 있다. 또 보은군에 낙우당구곡(樂愚堂九曲)이 있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그간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해 연구해왔다.

- 2) 이석린(李錫麟), 「중봉 조헌 연구(重峰 趙憲 研究)」, 경희대 박사논문, 1984.
이석린(李錫麟), 『임란 의병장 조헌 연구(壬亂 義兵將 趙憲 研究)」, 신구문화사, 1994.
김용덕(金龍德), 「중봉 조헌 연구(重峰 趙憲 研究)」, 『조선후기사상사연구』, 을유문화사, 1977.
이동준(李東俊), 「중봉(重峰) 조헌(趙憲)의 역사의식과 국방대책」, 『동대논총』 제6집, 동덕여자 대학, 1976.
- 3) 박병헌(朴炳憲), 「중봉(重峰) 조헌(趙憲)의 시세계」, 동국대 석사논문, 1991.
- 4) 금기(琴基), 「중봉(重峯) 조헌(趙憲)선생이 후율정사(後栗精舍)에서 읊은 율원구곡시(栗原九曲詩)의 새로운 음미」, 『문화관광부 선정 2004년 9월의 문화인물 중봉 조헌선생의 생애와 정신문화의 재조명』, 중봉 조헌선생 정신문화 선양추진회, 2004년 9월 13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홀. 금기교수는 율원구곡의 시 제목과 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학술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 조사를 계획하고 있었다한다. 필자는 한국의 구곡은 물론 충북의 구곡에 대해 중점연구를 하고 있다. 조헌의 율원구곡도 그 대상의 하나였다. 그래서 율원구곡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제2차 답사일을 2005년 7월 24일 일요일로 잡았다. 이때 필자는 옥천의 지리와 지명을 잘 몰라서, 안후영 옥천예총회장께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회장은 옥천향토사연구회 회원들과 금기교수를

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다 필자와 만나 공동 답사를 하게 되었다.

이제 그간 현지 답사를 통해 확인한 정보에 의거하여 율원구곡의 명칭과 위치를 비정해보고 그 경관을 살펴본다. 아울러 율원구곡시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율원구곡시에 대한 올바른 감상을 확산하고 구곡문화에 대한 효율적 이해를 도모코자 한다.

II. 구곡(九曲)과 구곡시(九曲詩)의 유래

1. ‘곡(曲)’을 ‘구곡(九曲)’으로 한정된 철학적 배경

주지하다시피 ‘구곡’은 아홉 개의 ‘곡’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곡’을 아홉 개를 설정하고, ‘구곡’이라 했을까? 이는 주역(周易) ‘구오(九五)’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근자에 김문기(金文基)가 그의 논문에서 간략한 언급한 바 있으며⁵⁾, 조선 후기 홍양호(洪良浩)의 글에도 보인다. 이 점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논리적으로 전개한 기록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는 아직 목도하지 못했다.

최초로 ‘구곡’을 설정한 사람은 중국의 주자이다. 주자의 글을 통해 이런 점을 언급한 사실이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순서이겠으나, 제반 여건상 쉬운 일이 아니라서, 편의상 주역의 논리를 따라, 주자가 구곡을 설정한 의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설문해자(說文解字)에, “구(九)는 양수(陽數)의 변(變)이며, 그 굽은 것이 다 끝난 모양을 본뜬 것이다.”⁶⁾라고 설명했다.

모시고 왔다. 필자는 이날 함께 오신 금기교수님을 이지당(二止堂)에서 뵈었다. 이날 이분들과 함께 율원구곡 제3곡·제4곡·제7곡의 위치를 확인했다. 아울러 『유율원차무이도가운(遊栗原次武夷棹歌韻)』을 토대로 현지답사를 하면 구곡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지 상황을 감안하여 시를 번역하면 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또 이를 잘 정리하여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여 중봉의 율원구곡과 율원구곡시를 널리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그래서 그분과 7번 함께 답사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결과를 정리하여 필자가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게 된 것이다. 금기교수께서는 중봉 선생의 업적을 선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였으며, 율원구곡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에서 내려와 일곱 차례 답사하는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율원구곡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명칭을 정리하는데 있어, 그분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기 때문에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분의 애향심에 삼가 경의를 표하고 그 노고에 감사한다. 아울러 함께 답사한 분들의 관심과 열정에 감사한다.

- 5) “역(易)의 구오 즉(卽) 비룡재천격(飛龍在天格)인 구오를 택해서 5곡” 김문기(金文基), 『구곡가계(九曲歌系) 시가(詩歌)의 계보(系譜)와 전개양상』, 『국어교육연구』23, 국어교육연구회, 1991. 52.
 6) 『설문해자(說文解字)』. 九 陽數之變, 象其屈曲究盡之形.

역(易)의 괘(卦)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에 양효(陽爻)와 음효(陰爻)가 있다. 양효와 음효는 역을 구성하는 두 가지 괘이다. 음효 하나로써 양효 하나로써 길을 삼는다. 양효는 괘효의 하나, 일(一)로써 길을 삼는데, 음효<일>(陰爻<一>)과 상대가 된다.

다음은 구오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제일(第一)의 자리에 놓이게 되어, 그래서 초(初)라고 칭했다. 그 양(陽)으로서 효(爻)가 되어, 그래서 구(九)라 칭하는 것이다.⁷⁾

역괘(易卦)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수(數), 양효가 제오위(第五位)에 위치하는 것을 일컬어 구오라 한다.⁸⁾

구오에 말하기를, “‘날으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大人)을 보는 것이 이롭다.’고 함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했다. 공자가, ‘같은 소리는 서로 화응(和應)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구한다. 물은 흘러 습(濕)하게 되고, 불은 나아가 마르게 한다.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른다. 성인이 나타나면 만물이 본다. 하늘에 바탕을 둔 것은 위와 가깝게 되고, 땅에 바탕을 둔 것은 아래와 가깝게 되니, 곧 저마다 그 부류를 따르게 된다.’⁹⁾”라고 말했다.

위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구오는 만물이 각각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원만하고 활발하게 작용하는 상황이다.

『주역』 「계사전(繫辭傳)」상(上). 에,

“천자의 지위이다. 역(易)의 구오는 군(君)의 자리를 본 뜻 것이다.¹⁰⁾”

라 했다. 즉 구오가 군(君)의 자리라 함은 제일의 자리 으뜸의 자리인 것이다. 모든 것이 으뜸 또는 제일로 진행되는 상황으로 본 것이다.

『주역』 「건(乾)」에,

“공자가 말했다. … 건(乾)의 큼이 구(九)를 쓰니 천하가 다스려지는 것이다.¹¹⁾”라고 했다. 즉

7) 『주역(周易)』 「건(乾), 초구(初九), 소(疏)』. 居第一之位, 故稱初. 以其陽爻, 故稱九.
8) 『주역(周易)』 「건(乾)』. 易卦從下向上數, 陽數居第五位, 謂之九五.
9) 『주역(周易)』 「건(乾)·구오』. 九五曰 飛龍在天, 利見大人, 何謂也? 子曰 同聲相應, 同氣相求, 水流濕, 火就燥, 雲從龍, 風從虎. 聖人作, 萬物覩. 本乎天者, 親上, 本乎地者, 親下, 則 各從其類也.
10)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상(上). 天子之位也. 易之九五, 象君位.(易 繫辭 上. 崇高莫大乎富貴, 疏).
11) 『주역(周易)』 「건(乾)』. 子曰 … 乾元用九, 天下治也.

구(九)는 천하가 다스려지게 하는 숫자이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구오는 만물이 각각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원만하고 활발하게 작용하는 상황이며, 모든 것이 으뜸 또는 제일로 진행되는 상황으로 본 것이며, 천하가 다스려지게 하는 숫자인 것이다. 결국 구오는 만물이 각각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원만하고 활발하게 작용하게 하여, 천하를 으뜸으로 잘 다스려지게 하는 상황을 표현한 께이다. 그러니까 자연에 구곡을 설정한 것은 순리대로 원만하게 천하가 으뜸으로 잘 다스려지기를 기원하는 천하관과 정치관의 자연에의 표현인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구곡은 주역에 나오는 양효가 제5위에 있는 구오의 원리에 근거하여 ‘아홉 개’의 ‘곡’을 설정한 것이다. 주자는 주역의 구오의 원리를 원용하여 구곡을 설정한 것이며, 제 5곡에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지은 것이다.

구곡의 아홉 개의 곡을 설정하게 된 것을 주역의 구오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인물로는 홍양호(洪良浩 1724~1802)가 있다.

「우이동구곡기(牛耳洞九曲¹²⁾記)」

무릇 구(九)라는 숫자는 양(陽)이 왕성하고 숫자가 극에 달한 것이다. 그래서 [건(乾)의 책(策)=건괘(乾卦)]에 구(九)를 쓴 것이니, 규범(規範)에 홍범구주(洪範九疇)¹³⁾가 있으며, 공(貢)에 구주(九州)¹⁴⁾가 있으며, 동(洞)에 구곡(九曲)이 있는 것이니, 또한 자연(自然)의 숫자이다. 주부자(朱夫子)¹⁵⁾가 무이(武夷)¹⁶⁾의 깊은 곳에서 출발한 것으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명승지를 점유

12) 우이동구곡(牛耳洞九曲): 지금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일대에 설정한 구곡.
 13) 범주서(範疇書): 홍범구주(洪範九疇). 중국 하(夏)의 우(禹)임금 때 낙수(洛水)에서 나타난 신령스런 거북이 등에 나타났다는 구장(九章)의 글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대법(大法). 첫째 오행(五行), 둘째 경건히 시행할 오사(五事), 셋째 농사에 필요한 팔정(八政), 넷째 협조하여 적용할 오기(五紀), 다섯째 임금의 법칙을 통일시키는 황극(皇極), 여섯째 다스림에 적용할 삼덕(三德), 일곱째 명확하게 하기위해 점을 치는 계의(稽疑), 여덟째 정치의 잘잘못을 살피는 서징(庶徵), 아홉째는 신하의 공덕을 기리는 오복(五福)과 악덕을 경계하는데 필요한 육극(六極)이다. 『서경(書經)』 「홍범(洪範)」.
 14) 구주(九州): 우(禹)임금이 9의 권역으로 나누어 다스리던 행정구역. 『書經』 「禹貢」. 冀州·兗州·青州·揚州·荊州·豫州·梁州·雍州.
 15) 주부자(朱夫子): 주희(朱熹)를 가리킴.
 16) 무이(武夷): 무이산(武夷山)을 지칭함. 중국 복건성(福建省) 송안현(崇安縣) 남쪽에 있는 산. 무이구곡은 승진동(升眞洞), 옥녀봉(玉女峯), 선기암(仙機岩), 금계암(金雞岩), 철적정(鐵笛亭), 선장봉(仙掌峯), 석당사(石唐寺), 고루암(鼓樓岩), 신촌시(新村市)이다. 풍경이 뛰어나게 아름답다.

한 사람은 대략 구(九)로 숫자를 삼은 경우가 많다. 오직 영남(嶺南)의 도산(陶山)¹⁷⁾과 해주(海州)의 석담(石潭)¹⁸⁾이 더욱 뛰어나니, 어찌 오직 땅의 아름다움 때문이겠는가?. 거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이다. 지금 우이(牛耳)의 곡(曲)은 만경폭(萬景瀑)¹⁹⁾의 웅장하고 기이함과 월영담(月影潭)²⁰⁾의 맑고 뛰어난은, 무이(武夷)와 더불어 어느 것이 나은 지 알 수 없으니, 즉 도산(陶山)과 석담(石潭)의 장소에는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 것은, 또한 사람을 기다릴 뿐이다.²¹⁾

홍양호는 구가 양이 왕성한 숫자이기 때문에, 서경에 나오는 하나라 우임금이 법률을 흥범 구주(洪範九疇), 행정구역도 구주(九州)로 했으며, 주자가 동(洞)도 구곡으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주역의 구오의 원리를 간파한 식견 있는 발언이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주자의 무이구곡은 주역 구오의 원리의 자연에 표현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구곡은 주역 구오의 원리에 근거하여 완성한 주자의 무이구곡을 모방한 것이며, 구곡시는 주자의 「무이도가」를 모방한 것이다.

우리나라 통일신라시대의 구주 오소경²²⁾도, 주역의 구오의 원리와 하나라 우임금의 구주를 모방하여 행정구역을 설정한 것이다. 즉 주역의 구오의 원리인 상생력이 발휘되고 최고의 자리

17) 도산(陶山):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도산구곡(陶山九曲)을 말함.

18) 석담(石潭): 울곡(栗谷) 이이(李珣)가 설정한 황해도 해주군 고산(高山) 석담(石潭)에 있는 석담구곡(石潭九曲) 즉 고산구곡(高山九曲)을 말함. 이이(李珣)가 1578년에 지은 10수의 연시조인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가 전해진다. 고산구곡(高山九曲)은 다음과 같다. 제1곡 관암(冠巖), 제2곡 화암(花巖), 제3곡 취병(翠屏), 제4곡 송애(松崖) 제5곡 은병(隱屏), 제6곡 조협(釣峽), 제7곡 풍암(楓巖), 제9곡 금탄(琴灘).

19) 만경폭(萬景瀑): 우이동구곡 제 1곡.

20) 월영담(月影潭): 우이동구곡 제 6곡.

21) 홍양호(洪良浩), 「우이동구곡기(牛耳洞九曲記)」, 『이계집(耳溪集)』, 한국문집총간 241, 민족문화추진회, 2000, 224면. “夫九者, 陽之盛數之極. 故乾之策用九, 而範有九疇, 貢有九州, 洞之九曲, 亦自然之數也. 自夫朱夫子發武夷之奧, 東人之占名區者, 率多以九數焉. 惟嶺南之陶山, 海之石潭尤著焉, 豈惟地之勝歟. 殆由人而顯也. 今牛耳之曲, 如萬景之雄奇, 月影之清絕, 未知孰與武夷, 而卽陶山·石潭之所未有也. 然其顯不顯, 亦待乎人焉爾耳.”

22) 통일신라시대 구주(九州) 오소경(五小京): 문무왕 때부터 신문왕 때까지의 명칭(= 뒤의 명칭은 현재의 지명). 구주(九州): 사벌주(沙伐州)= 상주(尙州). 삼량주(歙良州)= 양산(梁山). 청주(靑州)= 진주(晉州). 한산주(漢山州)= 광주(廣州). 수약주(首若州)= 춘천(春川). 웅천주(熊川州)= 공주(公州). 하서주(河西州)= 강릉(江陵). 완산주(完山州)= 전주(全州). 무진주(武珍州)= 광주(光州). 오소경(九州 五小京): 금관경(金官京)= 김해(金海). 중원경(中原京)= 충주(忠州). 북원경(北原京)= 원주(原州). 서원경(西原京)= 청주(淸州). 남원경(南原京)= 남원(南原).

에 도달하기를 염원하는 의지를 행정구역 설정에 적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동양과 한국의 전통학문을 연구하려면, 삼경과 사서를 필수적으로 읽어야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주자의 무이구곡과 「무이도가」

무이구곡과 「무이도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고려말에 주자학은 성리학이란 이름으로 중국에서 받아들였으며, 이의 이념을 수용한 신진 지식인들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주자는 우리나라에 사상적인 면은 물론, 문인학자들의 강호에의 생활면 그리고 문학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주자에 대해 알아보자. 주자(1130~1200)는 송의 대유학자이다. 이름은 희(熹)요, 송(松)의 아들이다. 자는 원회(元晦), 중회(仲晦)로 고쳤다. 만년의 호(號)는 회암(晦菴)·창주병수(滄州病叟) 등이다. 관직은 고(高)·효(孝)·광(光)·영(寧) 사조(四朝)에 걸쳐 전운부사(轉運副使)·환장각대제(煥章閣待制). 비각수찬(秘閣修撰)등을 역임했다. 그 당(堂)의 이름이 자양서당(紫陽書堂)·무이정사(武夷精舍)이다. 46세 때 건양현 70리 노봉아래 운곡에 초당 짓고 회암(晦庵)이라 이름한 후 운곡노인(雲谷老人)·회암(晦庵)·회옹(晦翁)이라 불렸다.

또 63세 때인 1192년 건양의 고정에 복축하여 창주정사(滄州精舍)를 세웠는데, 고정에 강학하는 장소가 있어 사람들이 고정학과(考亭學派)라 불렀다.

『자치통감절목(自治通鑑節目) · 사서집주(四書集注) · 소학(小學) · 근사록(近思錄) 등 많은 저술이 있다.

주자는 무이구곡과 운곡(雲谷)²³⁾에 은거했다. 무이산에 대해 알아보자. 무이(無羃)로도 쓴다. 중국 복건성 송안현 남쪽 선하산맥(仙霞山脈)이 일어나는 머리가 된다. 옛날에 신인 무이군이 살던 곳이라 그렇게 이름했다. 구곡계는 9.5km에 걸쳐있으며, 많은 봉우리들이 줄지어 솟아있는데, 삼양봉(三仰峯)이 가장 높으며, 시내가 감돌아 흘러가는데, 구곡이라 일컬어지는 곳이 있다.

무이구곡은 다음과 같다. 1곡 승진동(升眞洞). 2곡 옥녀봉(玉女峯). 3곡 선기암(仙機岩). 4곡 금계암(金雞岩). 5곡 철적정(鐵笛亭). 6곡 선장봉(仙掌峯). 7곡 석당사(石唐寺). 8곡 고루암(鼓樓岩). 9곡 신촌시(新村市)이다.

주자는 순희(淳熙) 갑진년(甲辰年 1184년) 55세 봄 「무이도가」²⁴⁾를 지었다. 「무이도가」란

23) 운곡(雲谷): 중국 복건성(福建省) 건양현(建陽縣) 서쪽. 본래 노봉산(蘆峯山)이었는데, 주자(朱子)가 운곡(雲谷)이라 개명하고 그 아래 운곡초당(雲谷草堂)을 지었음.

주자가 무이구곡의 제1곡에서 부터 제9곡까지 산수풍광을 읊은 9수의 연작시를 말한다.

주자(朱子)의 「무이도가」전편을 소개한다. 성균관대학교 송재소교수의 번역을 참고했다.²⁵⁾

무이도가

무이산상유선령, 산하한류곡곡청. 육식개중기절처, 도가한청양삼성.

(武夷山上有仙靈, 山下寒流曲曲清. 欲識箇中奇絕處, 權歌閑聽兩三聲.)

무이산 위에는 선령(仙靈)이 있고, 산 아랫 찬물결 구비구비 맑은데

그중에 기절처(奇絕處) 알고 싶으면, 한가롭게 도가(權歌)소리 들어보게나.

일곡계변상조선, 만정봉영잠청천. 홍교일단무소식, 만학천암쇄취연.

(一曲溪邊上釣船, 幔亭峯影蘸清川. 虹橋一斷無消息, 萬壑千岩鎖翠煙.)

일곡이라 냇가에서 낚싯배에 오르니, 만정봉(幔亭峯) 그림자가 맑은 내에 잠겨 있네.

홍교(虹橋) 한 번 끊어진 후 소식 없는데, 천 만개 골과 산이 푸른 안개에 싸여 있네.

이곡정정옥녀봉, 삽화임수위수용. 도인불복양대운, 홍입전산취기중.

(二曲亭亭玉女峯, 插花臨水爲誰容. 道人不復陽臺雲, 興入前山翠幾重.)

이곡이라 옥녀봉(玉女峯) 우뚝 솟아 있는데, 물가에서 꽃 꺾고 누굴 위해 단장했나.

도인(道人)은 양대(陽臺)의 꿈 다시 꾸지 않고서, 흥에 겨워 산에 드니 푸르름이 몇 겹이나.

삼곡군간가학선, 부지정도기하년. 상전해수금여허, 포말풍등감자련.

(三曲君看架壑船, 不知停權幾年. 桑田海水今如許, 泡沫風燈敢自憐.)

삼곡이라 그대는 가학선(架壑船)을 보았는가, 노젓기 멈춘지 몇년이나 되었던가.

상전(桑田)이 벽해(碧海)됨이 이와 같은데, 인생의 덧없음을 어찌 감히 슬피하랴

사곡동서양석암, 암화수로벽람참. 금계규과무인견, 월만공산수만담.

(四曲東西兩石巖, 岩花垂露碧[毛+監]蓂. 金鷄叫罷無人見, 月滿空山水滿潭.)

사곡이라 동서에 우뚝 솟은 두 바위, 이슬젖은 꽃잎이요 무성한 풀이로다.

24) 「무이도가(武夷權歌)」: 원 제목은 다음과 같다. 「순희 갑진 중춘 정사한거 희작 무이도가 십수 증제동유 상여일소(淳熙 甲辰 中春 精舍閑居 戲作武夷權歌十首 贈諸同遊 相與一笑)」. 『주자대전(朱子大全)』 권9.

25) 송재소(宋載弼), 「응와(凝窩) 이원조(李元祚)의 포천구곡차무이도가(布川九曲次武夷棹歌)에 대하여」, 『한국의 경학과 한문학(죽부(竹夫) 이지형교수(李旻衡教授) 정년퇴직 논총)』, 태학사, 1996. 595~615.

금계(金鷄) 울음 그치고 인적도 없는데, 빈 산엔 달 가득 연못엔 물이 가득.

오곡산고운기심, 장시연우암평림. 임간유객무인식, 애내성중만고심.
(五曲山高雲氣深, 長時烟雨暗平林. 林間有客無人識, 歎乃聲中萬古心.)
오곡이라 산 높아 구름기운 짙고 짙어, 언제나 평림(平林)은 안개비에 어두운데,
숲속의 나그네 알아줄 이 없으니, 노젓는 소리 속 만고심(萬古心)에 잠기도다.

육곡창병요벽만, 모자종일엄시관. 객래의도암화락, 원조불경춘의한.
(六曲蒼屏遶碧灣, 茅茨終日掩柴關. 客來倚櫂巖花落, 猿鳥不驚春意閑.)
육곡이라 푸른 병풍 물굽이 들렀는데, 띠집엔 종일토록 사립문 닫혀있네.
삿대 기댄 나그네, 바위 꽃 떨어지고, 새·원숭이 소리없이 봄은 마냥 한가롭네.

칠곡이선상벽탄, 은병선장갱회간. 각련작야봉두우, 침득비천기도한.
(七曲移船上碧灘, 隱屏仙掌更回看. 却憐昨夜峰頭雨, 添得飛泉幾道寒.)
칠곡이라 배를 저어 푸른 여울 올라가니, 은병봉·선장봉이 다시 돌아 보이는구나.
아름답다, 어제밤 봉우리에 나린 비로, 몇 갈랜지 불은 물길 싸늘한 것을.

팔곡풍연세욕개, 고루암하수영회. 막언차처무가경, 자시유인불상래.
(八曲風煙勢欲開, 鼓樓巖下水縈迴. 莫言此處無佳境, 自是遊人不上來.)
팔곡이라 바람·안개 걷히려는데, 고루암(鼓樓巖) 아래 물결 굽이쳐 돌아드네.
이곳에 가경(佳境)이 없다고 하지 말라, 이로부터 유람객이 오지 않을라.

구곡장궁안활연, 상마우로견평천. 어랑갱먹도원로, 제시인간별유천
(九曲將窮豁然, 桑麻雨露見平川. 漁郎更覓桃源路, 除是人間別有天)
구곡이라 다하려니 눈앞이 환해지고, 상마(桑麻)와 우로(雨露)에 평천(平川)이 보이누나.
어랑은 도원(桃源)길 다시 찾지만, 여기가 인간의 별유천(別有天)인 것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자는 무이구곡을 설정하고 「무이도가」를 지었다.

3. 율곡 이이의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와 고산구곡가 한역시

주자의 무이구곡과 「무이도가」를 본받아, 이이는 고산구곡을 설정하고 「고산구곡가」를 지었다. 고산구곡은 황해도 해주군 고산면 석담에 설정했다. 석담구곡 또는 고산구곡이라 한다. 고산구곡은 다음과 같다. 제1곡 관암(冠巖), 제2곡 화암(花巖), 제3곡 취병(翠屏), 제4곡 송애(松崖) 제5곡 은병(隱屏), 제6곡 조협(釣峽), 제7곡 풍암(楓巖), 제9곡 금탄(琴灘)이다.

이이가 1578년에 지은 10수의 연시조인 고산구곡가가 전해진다. 고산구곡가는 문헌에 따라 표기법이 다르다. 본고에서는 수록연대가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이형상(李衡詳)의 병와전서(瓶窩全書), 「악학습령(樂學拾零)」에 수록된 대본을 참고한다. 원문에 붙여 썼으나, 편의를 위해 띄어 썼다.

高山九曲潭을 사름이 모로더니
誅茅卜居호니 벗님너 다 오신다
어즈버 武夷를 想像호고 學朱子을 호리라.

一曲은 어더미오 冠岩에 호비친다
平蕪에 너 거드니 遠近이 그림이로다
松間에 綠罇을 노코 벗 오논 양 보노라

二曲은 어더미오 花岩에 春晚커다
碧波에 곳을 띄워 野外로 보니노라
사름이 勝地을 모로니 알게 호들 엇더리

三曲은 어더미오 翠屏에 님 퍼졌다.
綠樹에 山鳥는 下上其音호는 적의
盤松이 바름을 바드니 녀름 景이 업시라.

四曲은 어더미오 松岩²⁶⁾에 호 넘거다.
潭心岩影은 온갓 빗치 줌겨세라
林泉이 김도록 도호니 興을 계워 호노라

26) 송암(松岩): 송애(松崖)로 되어 있는 (本)이 많다.

五曲은 어덕미오 隱屏이 보기 도타
水邊精舍은 瀟洒흐도 ㄴ이 엇다
이중에 講學도 흐려니와 咏月吟風흐리라

六曲은 어덕미오 釣(위 山+ 아래 夾)에 물이 엇다
나와 고기와 뉘야 더욱 즐기노고
黃昏에 낙디를 메고 帶月歸를 흐노라

七曲은 어덕미오 楓岩에 秋色 도타
清霜 얹게치니 絶壁이 錦繡 | 로다
寒岩에 혼즈셔 안자 집을 잇고 잇노라

八曲은 어덕미오 琴灘에 돌이 붉다
玉軫金徽로 數三曲을 노는 말이
古調를 알아 엇스니 혼즈 즐거 흐노라

九曲은 어덕미오 文山에 歲暮커다
奇巖怪石이 눈 속에 무쳐세라
遊人은 오지 아니흐고 불 것 엇다 흐더라

이이와 그가 지은 「고산구곡가」가 끼친 그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이이가 한글로 창작한 「고산구곡가」를 한시(漢詩)로 번역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이를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해본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 1629~1689)
제월(霽月) 송규렴(宋奎濂 1630~1709)
장암(丈巖) 정호(鄭澍 1648~1736)
수곡(睡谷) 이여(李畬 1645~1718)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 1624~1701)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1653~1722)
수암(遂庵) 권상하(權尙夏 1641~1721)

지촌(芝村) 이희조(李喜朝 1655~1724)

교리(校理) 송주석(宋疇錫 1650~1692) 등 10명이다.

이 한역시 작자들은 모두 기호학맥(畿湖學脈) 서인(西人) 노론계(老論系) 인물들이다. 이어 「고산구곡가」의 한역시인 「고산구곡시」²⁷⁾를 소개한다.

우암(尤庵), 「기차무이도가수운(既次武夷權歌首韻), 하분속제공(下分屬諸公). 의선생구곡가이성지(李先生九曲歌 而成之).

우암이 이미 무이도가수운(武夷權歌首韻)에 차운하였으며, 그 이하는 여러 분에게 배분하여, 선생의 구곡가(九曲歌)의 내용에 의거하여 완성했다.

오백천중지병령(五百天鍾地炳靈), 5백가지 천품(天稟)을 받고 땅이 영험함을 밝혀주어,
울옹자품수이정(栗翁姿稟粹而精). 울곡선생의 자품이 순수하고 정예하네.
고산구곡유심처(高山九曲幽深處), 고산구곡(高山九曲) 아늑하고 깊은 곳에,
울곡한류점슬성(汨瀾²⁸⁾寒流點瑟聲). 빠르게 흐르는 시원한 시내물소리 비파소리라.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

일곡송간양옥선(一曲松間漾玉船), 일곡이라 소나무 사이에 옥선(玉船)을 띄우니,
관암초일영전천(冠巖初日映前川). 관암(冠巖)의 아침 햇빛이 앞개울에 비치네.
휴공좌대가봉지(携筇坐待佳朋至), 지팡이 잡고 앉아서 친한 벗 오기를 기다리니,
원수평무권권연(遠岫平蕪捲捲煙). 먼 산봉우리 평평한 들녘에 안개 걷히네.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 1629~1689)

이곡선암화영봉(二曲僊巖花映峯), 이곡이라 선암(僊巖)은 꽃이 비치는 봉우리,
벽파유수양춘객(碧波流水漾春客). 푸른 물결 흐르는 물에 봄놀이 손님 띄우네.
낙홍해사어랑식(落紅解使漁郎識), 떨어진 꽃잎을 어부에게 알아보게 하였으니,
휴설도원격만중(休說桃源隔萬重). 무릉도원(武陵桃源)이 만 겹이나 떨어져있다 말하지 말라,
제월(霽月) 송규렴(宋奎濂 1630~1709)

27) 이이(李珣), 「고산구곡시(高山九曲詩)」, 『울곡전서(栗谷全書)』Ⅱ, 부록(附錄) 속편(續編), 한국 문집총간 45. 민족문화추진회, 1992. 452~253면.

28) 울곡(汨瀾): 울(汨)은 빨리 흐르는 모양. 빠른 모양. 곡(瀾): 물이 갈라져서 흘러가는 모양. 셀 차게 흐르는 모양.

삼곡증문영학선(三曲曾聞詠壑船), 삼곡이라 일찍이 학선(壑船)에서 읊조렸다 들었는데,
 상유이도문하년(上游移櫂問何年). 노저어 올라가며 그 때가 어느 해인가 물었네.
 산금해설창상사(山禽解說滄桑事). 산새는 상전벽해(桑田碧海)의 일을 설명하며,
 하상기음정가련(上下其音正可憐). 오르내리니 그 울음소리 정말 가련하네.
 장암(丈巖) 정호(鄭濞 1648~1736)

사곡송매장암(四曲松崖萬丈巖), 사곡이라 송애(松崖)는 만 길의 바위,
 일사임영취람삼(日斜林影翠[毛+監]巖). 해 기울자 숲그림자 푸르름이 짙네.
 이정정재유심처(怡情正在幽深處), 기쁜 정 바로 아늑하고 깊은 곳에 있으며,
 운백산청집일담(雲白山靑集一潭). 흰 구름 푸른 산 연못 하나에 모였네.
 수곡(睡谷) 이여(李畬 1645~1718)

오곡운연심복심(五曲雲煙深復深), 오곡이라 구름 안개 짙고 또 짙은데,
 무이정사차산림(武夷精舍此山林). 무이정사(武夷精舍)가 이 숲속에 있네.
 유연장리청계상(悠然杖履清溪上), 빠르게 맑은 물가에 지팡이 짚고 거닐며,
 수회음풍영월심(誰會吟風詠月心). 누가 음풍영월(吟風詠月)하는 마음을 모으리?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 1624~1701)

육곡춘심조연만(六曲春深釣綠灣), 육곡이라 봄은 깊어가고 낚시 물가에 드리웠는데,
 귀시계월조송관(歸時溪月照松關). 돌아올 때 시내위에 뜬 달은 소나무굴을 비추네.
 호량상하천기활(濠梁²⁹上下天機活), 호량(濠梁) 위 아래에 천기(天機)³⁰가 활발하니,
 어아상념과숙한(魚我相念果孰閑). 고기와 나 서로의 생각 과연 누가 더 한가할꼬?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翁 1653~1722)

29) 호량(濠梁): 속세를 떠나서 자연속에서 한가롭게 즐김. 장자(莊子)가 호량(濠梁) 위에서 물고기가 노는 것을 보고 즐거워했음. 『장자(莊子)』, 「추수(秋水)」. 莊子與惠子, 遊於濠梁之上, 莊子曰, 鱖魚, 出遊從容, 是魚之樂. 惠子曰, 子非魚, 安知魚之樂? 莊子曰, 子非我, 安知不知魚之樂? 惠子曰, 我非子, 固不知子矣. 子固非魚, 子之不知魚之樂 全矣. 호량(濠梁): 안휘성(安徽省) 봉양현(鳳陽縣) 동북(東北) 동쪽에서 흐르는 호수(濠水)에 설치한 다리의 이름.

30) 천기(天機): 천성(天性)과 같은 뜻. 『장자(莊子)』, 「대종사(大宗師)」. 조선후기에 통용되었던性情(性情)·천기(天機)·성령(性靈)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상통하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이 천부적(天賦的)으로 지니고 있는 순수(純粹)하고 진실(眞實)한 정감(情感)과 성품(性品)으로 볼 수 있겠다.

칠곡풍암도벽탄(七曲楓巖倒碧灘), 칠곡이라 풍암(楓巖)이 푸른 물결에 꺼꾸로 비치는데,
 금병추색경중간(錦屏秋色鏡中看). 금병(錦屏)의 가을 기운이 거울 가운데 보이네.
 유연독좌망귀로(悠然獨坐忘歸路), 유연히 홀로 앉아 돌아가는 걸 잊고 있는데,
 일임상풍불면한(一任霜風拂面寒). 한 줄기 서리 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네.
 수암(遂庵) 권상하(權尙夏 1641~1721)

팔곡계산하처개(八曲溪山何處開), 팔곡이라 시내와 산이 어느 곳에 펼쳐졌는고?
 금탄동일호연회(琴灘終日好沿洄). 금탄(琴灘)이 휘감돌아가는 걸 종일토록 좋아하네.
 아현옥주무인화(牙絃³¹)欲奏無人^和), 백아(伯牙)의 거문고 연주하고자 하나 화답할 사람 없어,
 독대청천제월래(獨對青天霽月來). 홀로 파란 하늘을 바라보니 맑게 개인 달이 떠오르네.
 지촌(芝村) 이희조(李喜朝 1655~1724)

구곡문암설호연(九曲文巖雪皓然), 구곡이라 문암(文巖)에 하얗게 눈이 내려,
 기형엄진구산천(奇形揜盡舊山川). 옛 산천 덮어 모두 기이한 형상 되었네.
 유인만설무가경(遊人謾說無佳景), 노니는 사람들 아름다운 경치 없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미궁궁심차동천(未肯窮尋此洞天). 이 동천(洞天) 즐겨 찾으려 힘쓰지 않을라.
 교리(校理)³² 송주석(宋疇錫 1650~1692)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산구곡가」를 한역한 사람들은 모두 기호학맥 서인 노론계 인물들이다. 그 후 상당수의 기호학맥 서인계 인물들은 구곡을 설정하고 구곡시를 짓는다.³³⁾ 조헌의 율원구곡과 율원구곡시도 그 한 사례이다.

Ⅲ. 율원구곡(栗原九曲) 각각의 명칭 및 위치의 확인과정

조헌의 문집인 증봉집에 「유율원차무이도가운」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있다. 우선 율원구

31) 백아(伯牙)의 거문고줄: 백아(伯牙)가 거문고를 잘 타서 높은 산에 마음을 두고 타면, 종자기가 “좋도다. 높고 높도다, 태산 같이.”라고 하고, 강하(江河)에 마음을 두고 타면, 종자기가 “좋도다. 출렁출렁대도다, 강물같이.”라고 했다. 서로 마음이 잘 통한다는 뜻. 『열자(列子)』 「탕문(湯問)」, 伯牙鼓琴, 志在登高山, 鍾子期曰 善哉, 峨峨兮若泰山. 志在流水, 鍾子期曰 善哉, 洋洋兮若江河.
 32) 교리(校理): 다른 사람들은 모두 호(號)를 썼는데, 송주석은 관직의 명칭을 썼다. 송시열의 손자이다.
 33) 이상주(李相周), 「“구곡문화관광특구”와 그 구곡 설정자들의 학맥」, 『중원문화논총』제9집,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5. 참조.

곡 각각의 명칭과 위치를 추적해보기로 하자. 다음은 「연보」의 내용이다.

만력 12년 갑신년(1584) 선생 41세 정월, 율곡(栗谷)선생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신위(神位)를 만들어 곡(哭)하고 만시(挽詩)를 지었다. 겨울 끝에 대각(臺閣)³⁴에 계(啓)를 올린 것으로 파악되어 옥천(沃川) 안읍(安邑)에 거처했다. 말하는 자가 다시 전에 청했던 것을 거듭해서 그래서 마침내 연좌죄로 파직됐다. 이때 율곡이 이미 돌아갔는데 당파간(黨派間)의 논의(黨議)가 날로 격해지고 여러 음(陰)한 무리들이 날로 커져 많은 벌레들이 쏘려고 어금니를 벌려 율곡을 기중(奇中)³⁵하고자하는 것이 이르지 않음이 없었다. 선생이 서울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 보은(報恩)으로부터 옥천(沃川)의 안읍(安邑) 율치산(栗峙山)중으로 이사하고, 그 숲과 골짜기의 아늑함을 사랑했다. 인가의 연기가 드물었으며 날마다 그 사이를 어슬렁거렸다. 종유하는 선비들과 더불어 강론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때로 발사이를 다녔다. 동북들에게 과업을 권장해, 산중에 서실(書室)을 지었다. 이름을 후율정사(後栗精舍)했는데, 율곡을 흠모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상량문을 지었는데, “정암(靜菴)의 충효(忠孝)와 퇴계(退溪)의 학문(學問), 일맥(一脈)이 밝고 밝음이 석담(石潭)³⁶에 있도다.”라는 구절이 있다. 또 「무이도가」에 차운하여 그 뜻을 드러내보였다.³⁷

위 연보의 내용을 통해 율원구곡시는 1584년 조헌이 41세때 창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조헌은 율곡이 서거한 후, 율곡에 대하여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거론하는 세대에 염증을 느껴 서울을 등지고, 1584년 첩첩산중인 옥천 안읍에 은거할 양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 연보에 기술한, ‘옥천(沃川)의 안읍(安邑) 율치산(栗峙山)’의 현재의 위치를 추적해보았다. 지금의 충북 옥천군 안내면 용촌리 도리밤티(도래밤티)이다. 조헌이 이곳에 거처한 첫번째 이유는 오지라 은거하기 좋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자신의 선조의 고향을 잊고 앓기 위해, 지명이 유사한 곳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선조들은 황해도 백천(白川) 율원(栗原) 치악산

34) 대각(臺閣):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

35) 기중(奇中): 추측하여 말한 것이 일상적인 실정과 일상적인 이치와 다름. 『史記』, 「封禪書」. 少君資好方, 善爲巧發奇中.

36) 석담(石潭): 황해도 해주군 고산면(高山面) 석담(石潭). 율곡(栗谷) 이이(李珣)가 구곡을 설정했는데 석담구곡(石潭九曲) 또는 고산구곡(高山九曲)이라한다.

37) 조헌(趙憲), 「연보(年譜)」, 『중봉집 부록(中峰集 附錄)』권1, 한국문집총간 54, 민족문화추진회, 1992, 449면. 十二年 甲申 先生四十一歲 正月, 聞栗谷先生卒, 爲位而哭, 有挽詩. 冬末, 因臺啓罷職, 居沃川之安邑. 言者復申前請, 故竟坐罷. 時栗谷異沒, 黨議日激, 群陰日長, 衆螫張牙, 欲奇中栗谷無不至. 先生不樂居畿輔, 自報恩移寓沃川安邑栗峙山中, 愛其林壑幽邃. 人烟鮮少, 日徜徉其間. 與從遊之士, 講論不怠, 時往田間. 勸課僮僕, 爲書室於山中. 名曰後栗精舍, 蓋慕栗谷也. 自製上梁文, 有靜菴忠孝退陶學, 一脈昭昭在石潭之句. 又次朱子武夷權歌以見志.

(雉岳山) 근처에 살았다.³⁸⁾

다음은 조헌이 1584년에 쓴 「후율정사상량문(後栗精舍上梁文)」을 보기로 하자.

봉산(蓬山)의 북쪽, 노악산(老巖山)이 남쪽으로 이어지는데, 하나의 샘이 물의 근원을 이루어
줄줄 바다로 흘러간다. 네 봉우리가 잇달아 빼어나고 삼림이 울창하여 하늘에 닿는다. 비록 둘러
싸여 깊숙한 곳이라도 살 만한데, 어찌 거칠고 적막하다하여 가르치지 않으리? 땅에 영(靈)이 있
으나 오래도록 감춰져 있었으며, 사람이 인재를 안고 있는데, 어찌 말라버리겠는가?³⁹⁾

위에서 보듯이, 조헌은 봉산(蓬山)의 북쪽, 노악산이 남쪽으로 이어지는 아늑한 마을에 거쳐
하며 서당을 열었다. 봉산은 지금 충북 옥천군 안내면 용촌리 도리밤티마을 뒷산이다. 노악산
은 지금 충북 보은군 회남면과 회북면에 걸쳐 있는 노성산(老城山)이다. 따라서 방위상 노악산
은 봉산의 북쪽이 맞다.

연보의 내용과 「후율정사상량문(後栗精舍上梁文)」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금의 지명을 대조
한 결과, 후율정사 터는 지금의 충북 옥천군 안내면 용촌리 도리밤티 '서당골'이 확실하다.

필자는 울원구곡의 위치와 명칭을 확인하기 위해 울원구곡시에 나오는 지형·지세·지명등
을 참고로 8차례 현지를 답사했다. 1차 답사때 울원구곡은 조헌이 거쳐했던 지금의 옥천군 안
내면 용촌리 도리밤티 일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울원구곡은 지금의 금천계곡으로 부터
서화천(西華川) 하류에 걸쳐 설정됐다. 즉 지금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金山里)부터 금천계곡부
터 군북면 용호리(龍湖里)까지 60리 가량 된다. 그런데 제목은 「유율원차무이도가운(遊栗原次
武夷棹歌韻)」라 했다. 「율원에서 노닐며 무이도가에 차운하다」라는 뜻이다. 왜 제목에 울원을
넣었을까. 기본적으로 조헌 자신이 당시 울원에 살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의 선조들이 황
해도 백천(白川) 울원(栗原) 치악산 근처에 살았던 사실을 항상 잊기 않기 위함인 것 같다. 또
한 스승인 율곡 이이를 존경하는 뜻을 담은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서화천(西華川)이라 불리는 하천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호서읍지
(湖西邑誌)에는 보이지 않는다. 서화천라는 지명의 유래는, 필자가 점검한 결과 다음에서 유래

38) 조헌(趙憲), 「세덕(世德)」, 『중봉집 부록(中峰集 附錄)』권1, 한국문집총간 54, 민족문화추진회, 1992, 440면. 七代祖 諱 珙. … 遷于栗原雉岳山也卒. 諡文忠. 六代祖 諱 于吉 … 已上墓在白川栗原.

39) 조헌(趙憲), 「후율정사상량문 갑신 십이월(後栗精舍上梁文 甲申 十二月)」, 『중봉집』권12, 한국문집총간 54, 민족문화추진회, 1992, 425면. 蓬山之北, 老巖迤南, 一泉有源, 溜溜以放海. 四峰聯秀, 森鬱鬱以當天, 雖繚深而可居, 柰荒寂而無教? 地有靈而久闕, 人抱材兮幾枯.

된 것으로 보인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거주했던 김정연(金鼎淵 1793~1855)의 「소화설(少華說)」⁴⁰⁾에 백화산(白華山)이 나온다. 백화산은 충북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에 있다. 서화천은 백화산 서쪽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추정해볼 때, 백화산 서쪽에 있는 하천이라 서화천이라 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서화천의 유래를 밝힌 것도 이번 답사에서 얻은 수확의 하나이다. 그 후대 이병연(李秉延)의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에 서화천에 대해 기사를 살펴보자. 서화천은 지금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까지이다. 여기서부터 금강과 합쳐지는 합수머리까지는 용암천(龍巖川)이라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⁴¹⁾

구곡은 통상 산수가 수려한 하나의 작은 하천 또는 작은 강에 설정한다. 대개 하류로부터 1곡을 설정한다. 때로는 상류로부터 1곡을 설정하기도 한다. 이런 원칙을 참고하여 조헌이 설정한 구곡의 위치를 시의 내용을 토대로 추정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조헌의 율원구곡시와 현지의 지형·지세·지명을 근거로 하여 그 구곡의 명칭과 구곡의 위치를 규명하고자 노력했다. 이제 그 답사일정과 성과에 대해 개략해본다.

1. 1차 답사

- 1). 답사일시: 2004년 10월 7일 목요일
- 2). 답사자: 이상주, 서옥림, 우원길.
- 3). 성과: 율원구곡시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율원구곡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옥천군 안내면 용촌리 도리밭티 일원으로 갔다. 조헌의 중봉집, 「연보」에, 조헌이 거기에 거처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거처했다는 ‘집터’와 그가 마셨다는 ‘우물’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천문을 관측했다는 널찍하고 평평한 바위를 보았다. 그 앞에 ‘중봉 조선생 유상지석(重峰 趙先生 游賞之石)’라는 글자를 새긴 비석이 있다. 호서읍지에 “중봉선생이 여기서 천상을 봤

40) 金鼎淵, 「少華說」, 『少華集』권5, 475~476면. 郡之北, 皆峽峽, 坵江流岸, 古有僧寺, 寺毀而亭. 亭卽吾家所構也. 其西南亂峰蒼黑可醜, 獨中間一小巒, 不知從何落來, 橫作前案, 而其頂上, 土白, 隱映若光華外浮, 近看如皓眉, 遠看如一條雲氣, 土人曰因名之曰 白華山. 余於乙未(1835년: 인용자 주) 夏病, 避亭上, 而人病境僻, 無人來見者, 但朝夕坐臥, 所對只此, 耳目習心, 愛兩相不厭, 則思所以久, 吾不忘者(兪+市)不如坡翁之兩, 以名其亭也乎. 其時, 吾雖病, 而年尙少. 故以少華爲號云爾. 옥각리 출신으로 농협대 교수를 지낸 금기(琴基)선생께서 위 책을 제공해주어, 서화천의 유래를 밝히게 되었다. 감사한다.

41) 이병연(李秉延),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1935. 沃川郡, 山川. 西華川. 在郡 西 十里. 源出於西岱山, 下流入于龍巖川. 龍巖川. 在郡 北 楸沼里. “ 서화천. 군 서쪽 10리에 있다. 근원은 서대산에서 흘러나와 아래 용암천으로 흘러들어간다. 용암천. 군 북쪽 추소리에 있다.”

으며, 우암이 중봉선생 유상지석(遊賞之石)이라 썼으며, 후손 석렬(石烈)이 비석을 세웠다.”⁴²⁾는 기록이 있다. 최근에 정비하면서 바위 주위에 흙과 돌을 쌓아놓아 본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다. 암반의 전체적인 모양이 ‘고인돌’일 가능성이 있다. 원상 복구하여 정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시에 나오는 지명과 지형·지세를 현지에서 대조 확인한 결과, 전혀 부합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현이 구곡을 설정한 위치는 이곳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여러 가지 여건상, 아쉽게도 1차 답사는 여기서 끝내고 후일을 기약했다.

2. 2차 답사

필자는 옥천읍내는 여러 번 다녔지만 옥천군 전역의 지명과 지리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그리하여 효율적인 답사를 위해 옥천군향토사연구회원들에게 안내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금기 전 농협대 교수를 제외한 대다수 사람들은 울원구곡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1). 답사 일시: 2005년 7월 24일 일요일

2). 답사자

금기(琴基): 충북 옥천군 군북면 옥각리(玉覺里). 전 농협대 교수

안후영(安厚榮): 옥천 향토사연구회. 현재 옥천예총회장

이수암(李壽岩): 옥천향토전시관 명예관장

하동식(河東植): 옥천군청소년수련관 명예관장

김상배(金相培): 청주 길선중기(吉善重機) 사장

김태영(金泰英): 청주대학교 대학원 교학과. 현재 구매관리팀

지학근(池學根): 제천 의림공고 교사

42) 『호서읍지』, 국립중앙도서관, 아세아문화사, 1984, 130쪽. 沃川邑誌 樓亭 觀天石. 在佳山. 重峰仰觀天象于此, 尤菴(庵)으로 쓴다: 인용자 주)題其石曰 中峰先生遊(비석엔 ‘遊’로 되어있다:인용자 주)賞之石. 後孫石烈堅碑. 2006년 8월 29일 화요일 저녁 용촌리 김완기리장께서 전화로 들려준 일화다. “(1950년) 6,25 동란 때 마을에서 군대가는 사람이 있으며, 이 비석 앞에서 환송행사를 하고 무사를 비는 글을 낭독하면, 죽어서 오는 사람이 없었다. [3개 사단이 전멸하다시피 했는데(영험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3개 사단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필자 주)], 해병대에 입대했던 최만성도 무사히 귀향했다. 가뭄이 매우 심할 때 돼지를 잡고 이 비석 앞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3일 안에 비가 온다.”

이상주(李相周): 필자. 구곡문화전문가

먼저 제3곡시에 나오는 정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를 찾아갔다. 다음으로 4곡부터 8곡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일대를 돌아봤다. 마지막으로 제2곡시에 나오는 장현봉, 즉 지금의 장용산과 금천계곡을 돌아봤다. 그 결과 해당 구곡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었다.

3. 3차답사

- 1). 답사일시: 2005년 8월 27일 토요일
- 2). 답사자: 금기, 김상배, 김태영, 이상주

조헌의 후율정사터를 확인하기 위해 옥천군 안내면 용촌리 도리밤터를 다시 찾았다. 거기서 박태기(朴泰基 1958년 생)를 만났다. 그에게 봉산(蓬山)의 위치를 아느냐고 물었다. 「후율정사 상량문」에 나온다. 봉산은 바로 자기네 밭 뒷산이라 한다. 그는 조헌이 거쳐했다고 전해지는 밭의 소유자이며, 그 인근에 가산농원을 경영하고 있다. 그 뒷산에서 토기편이 많이 떠내려 왔다한다.

금기교수가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려주었다. 관가에서 나졸들이 나와 증봉이 사는 데를 물으니,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서 밤터재를 넘으면 된다” 하여 그 때부터 도리밤터라 했다 한다.

이날 구곡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손용화가 운영하는 ‘막지 2호’ 배를 탔다.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선착장에서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까지 왕복 1시간 30분이 걸렸다. 금기교수님께서 배삿 10만원을 지불했다.

4. 4차 답사

- 1). 답사일시: 2006년 3월 22일 수요일
- 2). 답사자: 김종구, 유제구, 금기, 이상주

이날 답사에서는 이곳 지리에 밝은 유제구(柳濟求) 옥천향토사연구회 회장의 도움으로 다음과 같은 수확이 있었다. 금천계곡 상류쪽을 답사하였다. 그곳은 협곡으로 산수가 수려한 곳이다. 제5곡 동남곡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다. ‘골냄이’ ‘아래골냄이’로 불린다. 4곡 창병, 6곡 문암, 7곡 은병의 위치를 보다 정확히 확인했다. 백화산의 위치도 확인했다. 옥천군 군북면 석

호리에 있다. 흙 색깔이 흰색이라 백화산이라 했는데 지금 백토산이라 부른다. 박정희정권시절 김종필 국무총리가 헬기를 타고 가다가 산이 하얗고 나무가 없는 것을 보고, 나무를 심으라 지시했다. 이때 나무를 심어 지금은 수목이 울창하다.

5. 제5차 답사

1). 답사일시: 2006년 4월 12월 12일 수요일

2). 답사자

이응백(李應百): 전 서울대교수. 증봉조현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윤병태(尹炳曦): 전 연세대교수. 증봉조현선생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금기(琴 基): 전 농협대교수

김정길(金貞吉): 옥천향토사연구회 회원

조원호(趙元浩): 배천조씨 문열공(文烈公)종회 회장

조은준(趙恩濬): 김포 우저서원 국장

조중현(趙鍾絃): 배천조씨 문열공(文烈公)종회 총무

유제구(柳濟求): 옥천향토사연구회 회장

유순화(柳純花): 도리밭터에 거주했던 주민

김중구(金鍾九): 충북과학대 교수

이상주(李相周): 필자. 구곡문화전문가; 청주대 강사

이날 ‘증봉조현선생기념사업회’ 임원진이 동행했다. 울원구곡의 명칭과 위치를 정확히 고증하려는 답사단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이다.

후을정사가 있던 정확한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 충북 옥천군 안내면 용촌리 도리밭터로 갔다. 필자가 이 동네에서 태어났다는 유순화여사에게, 이 동네 앞산에 혹시 ‘서당골’이나 ‘모정(茅亭)’이라는 지명이 있느냐고 물었다. 점심을 먹으려하는데 좀 늦게 들어온 금기교수가 앉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식당 근처에서 ‘삼성약방’을 경영하는 박난과(1930년 생)⁴³⁾씨가

43) 2006년 8월 29일 화요일 박난과님께 전화(043-732-6018)로 여쭙었다. 그 부인이 나물을 뜯으러 가다보면, 조현 선생이 살던 집터에 기와장이 3~4씩 여러 군데 포개져있었다 한다. 조현선생이 파놓은 우물을 동네사람 모두가 먹었다. 다음과 같이 어린 시절에 들은 얘기를 전했다. “조현선생이 서당골에서 밭을 맬 때, 조현선생을 찾아오는 손님이 오면, 자신은 아니라고 하고, 저 고개 돌아가면 만날 수 있다고 했다. 그 손님이 돌아가는 사이 알른 집으로 내려와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손님을 맞이했다. 손님이 아까 서당골에서 뵈 분 같다고 하면, 선생은 아니라고 했

말하는데, 도리밭터 앞산 너머에 ‘서당골’이 있으며 주초돌도 있다고 한다는 것이다. 그 분은 도리밭터에서 출생했다.

제9곡 삼봉을 확인하기 위해 배를 탔다. 유재범(柳在範 1940년생)이 배를 운전했다. 군북면 추소리에서 용호리 청풍정까지 왕복 3시간이 걸렸다. 청풍정에서 백화산이 지척에 보였다. 그런데 삼봉의 위치를 감지 할 수가 없었다. 충북 단양의 ‘도담 삼봉(島潭 三峰)’처럼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장소로 여겨진다.

6. 제6차 답사

1). 답사일시: 2006년 4월 18일 화요일

2). 답사자

금 기: 전 농협대교수

유제구: 옥천향토사연구회회장

이상주: 필자. 구곡문화전문가; 청주대 강사

장용산 맞은 편 산에서 삼단으로 형성된 폭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장용폭포’라 명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의견 통일을 봄.

환산 세심원의 뒤편에 있는 폭포를 답사했다. ‘양지어귀폭포’라 한다.

7. 제7차 답사

1). 답사일시: 2006년 6월 17일 토요일

2). 답사자

금 기: 전 농협대교수

유제구: 옥천향토사연구회회장

윤병희: 연세대 명예교수. 중봉조현선생기념사업회 상무이사

이안재: 옥천신문 사장

송은경: 이안재 사장의 부인

이상주: 필자. 구곡문화전문가; 청주대 강사

충북 옥천군 안내면 용촌리 도리밭터 ‘후율정사’터 확인. 일명 서당골.

다. 손님을 정중하게 맞으려 노력했다는 거지”

충북 옥천군 군북면 막지리 장고개(장현 帳峴) 답사.

8. 제8차 답사

1). 답사일시: 2006년 9월 10일 일요일

2). 답사자

금 기: 전 농협대학교수

유제구: 옥천향토사연구회회장

전순표(全舜杓): 옥천문화원부원장

조재명(趙在明): 대전 중소기업은행

김상배: 길선중기 사장

안후영: 옥천예총회장

이상주: 필자. 구곡문화전문가; 청주대 강사

울원구곡의 위치와 명칭을 조사하는데 참여한 분들이, 2006년 9월 22일 금요일 학술대회 개최 전에, 한 번 더 답사를 해서라도 제9곡에 나오는 삼봉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자는 의견을 내었다. 그래서 이날 손동철(孫東哲 1953년생)씨의 배로 '진걸나루'에서 출발하였다. 하류로 내려가면서, 송문흠(宋文欽 1710~1752)의 「선군자호상시후기(先君子湖上詩後記)」에 나오는 '삼봉(三峯)= 선인봉(仙人峯)'의 위치는 지금 충북 옥천군 군북면 막지리 '오봉'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하류로 내려가 '석호(石湖)'인근 '새터' '꽃산' 근처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그러나 조현의 제9곡시에 나오는 삼봉의 위치는 가늠할 수 없었다.

이날 안후영 옥천예총회장의 주선으로 '세심원'의 무변대사와 전화(043-731-1387)로 통화했다. 삼봉은 지금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와 이평리 사이에 있는 '삼봉재'를 가리키는 것 같다고 한다.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 조사해본 결과, 조현이 살던 집터와 후율정사터 및 우물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집터는 충북 옥천군 안내면 용촌리 전(田) 119번지. 박병대 소유 그 아들 박태기. 후율정사터는 충북 옥천군 안내면 용촌리 전 141번지 '서당골'. 박장술외 2인 명의. 우물은 충북 옥천군 안내면 용촌리 산 38번지이다.⁴⁴⁾

44) 2006년 8월 29일 화요일 저녁 용촌리 김완기 이장께 전화로 번지를 여쭙보았다.

IV. 율원구곡(栗原九曲) 각각의 위치와 명칭 및 경관

「유율원차무이도가운(遊栗原次武夷棹歌韻)」의 내용을 토대로 8차에 걸쳐 답사한 결과, 율원구곡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함께 답사한 분들이 시의 내용과 지형을 대조하여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다. 이제 그 명칭과 위치 및 그 경관을 정리한다.

제1곡은 창강(滄江)이다. 지금 충북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에 장용산 휴양림 주차장이 조성돼있다. 지금 이 일대의 계곡을 금천계곡이라 부른다. 시의 내용으로 보아, 지금의 금천을 시에서 창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봉집에 「금천사, 차권여명[필지형아]운(琴泉寺, 次權汝明[韓之兄也]韻)」⁴⁵⁾ · 「금천이총각문도(琴泉以總角聞道), 백수무성(白首無成). 분운득문자(分韻得聞字), 송주광문현중(送周廣文賢仲)」⁴⁶⁾이라는 시가 있다.

장용산에서 발원하는 금천과 서대산에서 발원하는 물은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에서 만난다. 특히 장용산 휴양림 주차장 상류쪽으로 올라가면 양쪽으로 산이 높게 솟고 경사가 심하다. 뿐만 아니라 산과 산 사이의 거리가 짧아 협곡을 형성하고 있다. 산에 암석이 많으며 계곡의 바닥에도 크고 작은 검은 색 돌이 지천이다. 때론 바닥 자체가 암반으로 형성된 곳도 더러 있다. 군데군데 기암괴석이, 좀 넓게 형성된 소(沼)와 조화를 이루어 절경을 이루고 있다. 자동차 도로는 장용산 휴양림주차장에서 끝난다. 그 상류쪽은 개울가에 오솔길을 통해서 왕래할 수 있다. 이 금천계곡물은 장용산 기슭을 따라 흘러 내려간다.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아 1곡은 ‘창강(滄江)’이라 부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제2곡은 장현봉(獎峴峰)이다. 지금 충북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에 일대에 있는 지금의 장용산이다. 제2곡시 제1구에 ‘이곡초요장현봉(二曲岾嶢獎峴峰)’라 하여, 장현봉(獎峴峰)이라는 지명이 보인다. 제3구에 ‘서대망료인침북(西臺望了因瞻北)’이라 하여, 서대산(西臺山)이라는 산이름이 보인다. 조헌은 서대사(西臺寺)에 간 적도 있다.⁴⁷⁾ 서대는 충북 옥천군 군서면과 충남 금산군 경계에 있는 서대산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⁴⁸⁾

45) 조헌(趙憲), 『중봉집(中峰集)』권1, 한국문집총간 54, 민족문화추진회, 1992, 144면.

46) 조헌(趙憲), 『중봉집(中峰集)』권1, 한국문집총간 54, 민족문화추진회, 1992, 145면.

47) 조헌(趙憲), 「서대사, 우박습독 성견, 야도퇴계사암사심상, 시이기지(西臺寺, 遇朴習讀 成堅, 夜道退溪思菴事甚詳, 詩以記之)」, 『중봉집(中峰集)』권2, 한국문집총간 54, 민족문화추진회, 1992, 179면.

48) 『국역 신증 동국여지승람(國譯 新增 東國輿地勝覽)』, 민족문화추진회, 1971, 원문 159면. 옥천군, 산천조에 서대산은 고을 남쪽 20리에 있다고 기록돼있다. 같은 책, 원문(原文) 138면, 전라도, 진산군(珍山郡), 불우(佛宇)에 ‘서대사(西臺寺)는 서대산(西臺山)에 있다. 옛날에 상·중·하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 호서읍지⁴⁹⁾ 등 지리지의 ‘옥천군 산천’에 장용산이라는 산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충북 옥천군 군서면에 있는 마성산(馬城山)과 연결된 한 봉우리가 장용산이다. 장령산(藏靈山)이라고도 부른다. 전반적 상황으로 보아 이 산을 조현 생존시에 장현봉이라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 산세가 웅장하고 수목이 울창하다. 지금 등산객의 왕래가 잦다. 전반적인 정황으로 보아 제2곡은 ‘장현봉’은 지금의 ‘장용산’을 가리킨다는 것으로 보인다.

제3곡은 ‘임정(林亭)’이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충북 옥천군 옥천읍 이백리(二白里)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제 3곡시 제1구에 ‘삼곡임정소사선(三曲林亭小似船)’라는 내용이 보인다. 숲속에 있는 정자가 작은 배와 같다. 통상적으로 임정(林亭) 즉 ‘숲속의 정자’라 불렀을 것으로 짐작된다. 조현의 「연보」에 의하면 1591년 48세 때 서정(西亭) 하류에서 문인 박로(朴輅)·전승업(全承業)등과 놀았다는 기록이 있다.⁵⁰⁾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적등루’라는 정자 하나만 기술되어있다. 호서읍지에 여러 루정의 이름이 실려있으나 ‘서정자’는 없다. ‘서정자⁵¹⁾’는 지금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서정리이다. 지금 도로 개설등 지형이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전에 이곳의 경관이 좋았던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지금 이지당(二止堂) 앞 하천이 풍광이 더 좋다. 조현이 놀았던 서정자 하류는 지금의 이지당 앞 하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송시열의 「이지당기(二止堂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중봉 조선생이 군의 동쪽 안읍(安邑)에 우거했다. 이씨⁵²⁾가 사람에게 마당을 쓸고 물을 뿌리게 하여 선생을 받들어 모셨다. 선생이 왕래하며 유상한 것이 대개 수 년이다. 마을⁵³⁾의 서쪽에서 특이한 곳을 찾았다. 바위와 골짜기가 빼어나게 아름다우며 개울이 못을 이루고 있다. 구렁이 있는데 잡짜기 끊어져 그 위는 올라가 의지하여 조망할 만하다. 그래서 선생이 가장 사랑하여 지팡

(上·中·下) 3개의 서대가 있었으나 지금 중 서대사(中 西臺寺)는 폐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49) 『호서읍지(湖西邑誌)』, 규장각, 아세아문화사, 1984.

50) 조현(趙憲), 「연보(年譜)」, 『중봉집 부록(中峰集 附錄)』권1, 한국문집총간, 54, 민족문화추진회, 1992, 456~457면. (萬曆)十九年 辛卯 先生 四十八歲. … 潤三月, 與諸生遊於郡地西亭下流. 是月之晦, 先生遊於西亭下流. 門人朴輅·全承業等從.

51) 서정자(西亭子)는 안사전(安嗣全 1459~1519)이 지은 정자이며, 그의 호이기도 하다. 1486년(성종17년) 진사에 합격하였으며, 1512년(중종 7년) 추천을 받아 이인찰방(利仁察訪)에 임명되었다가 1517년(중종 12)에 제용감 직장(濟用監 直長)으로 승진했다. 사화가 일어날 조짐을 알고, 지금의 충북 옥천으로 내려와 정자를 짓고 자적하였다. 『순흥안씨세보(順興安氏世譜)』, 1969년, 참조. 사화는 1519년에 일어난 기묘사화. 그 후손 안후영 옥천예총회장이 족보에 수록된 관련 내용을 복사하여 제공해주었다.

52) 이씨(李氏): 이탁(李擢). 글 앞부분에 나온다.

53) 촌(村): 각신촌(覺新村). 글 앞부분에 나온다.

이 짚고 신을 신고 여러 번 오셨다. 또 사운시를 지어 그 경치를 찬미했다.⁵⁴⁾

이 기록을 보면 제3곡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지금 이지당은 서하천 개울가에 약간 높은 곳 축대를 쌓고 지었는데 매우 운치가 있다. 이지당 주변은 암반이 물속까지 이어져있다. 물이 고여있는 범위가 넓어 작은 배를 띄우거나 낚시를 할 수 있다. 암석들이 퇴적암이라 표면에 크고 작은 돌이 박혀있다. 산과 시내가 어울어져 경관이 좋다. 지금의 이지당은 한 권에 누를 조성하여 운치있다.

이지당 가기 바로 전에 바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자로 새겨놓았다.

이지당(二止堂): 바라볼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다.
송정(崇禎) 정묘(丁卯) 일(日): 그 우측에 세로로 썼다.
중봉 조선생 유상지소(重峰 趙先生 游賞之所): 세로로 썼다.
우재선생 서(尤齋先生 書): 좌측에 세로로 썼다.

송정 정묘년은 1687년이다. 이 글씨를 새겨놓은 윗쪽에 평평하고 전망이 좋은 곳이 있다.

율원구곡 제3곡시 3,4구에 “인휴조율정신양(人攜棗栗呈新釀), 노수풍류이역련(老守風流爾亦憐)”라는 짓구가 있다. “사람들이 대추와 밤, 새로 담근 술 가져다주니, 늙은 태수의 풍류 그 또한 아름다워라.”라는 뜻이다. 다음 시 제목을 보자.

「이종철(李宗喆)과 함께 시냇가를 산보하는데, 마침 김대승(金大升) 생원과 현중(賢仲) 주헌민(周獻民)이, 술을 가지고 찾아와 취흥에 겨워 그것을 시로 읊었다.」

수려산명지(水麗山明地), 물이 곱고 산이 밝은 땅,
풍고락엽추(風高落葉秋). 바람 높이 불고 낙엽지는 가을.
상양제독조(徜徉提督趙)⁵⁵⁾, 산책하는 조제독(趙提督),

54) 송시열(宋時烈), 「이지당기(二止堂記)」, 『송자대전(宋子大全)』VI, 한국문집총간 113. 민족문화추진회, 1995, 86면. 重峯趙先生寓居郡東之安邑也. 李氏以掃灑人, 奉邀先生. 先生往來遊賞, 蓋數年矣. 村之西, 得一異處焉. 巖壑秀美, 水川淵滄. 有丘斗斷而上, 可以徙倚而騁眺. 故先生最愛而杖屨屢及. 又有四韻詩以美之矣. 「이지당기(二止堂記)는 1674년에 지었다. 시경(詩經), 「소아(小雅)·거할(車輦)」의 ‘고산양지(高山仰止), 경행행지(景行行止)’라는 짓구에서 따왔다. ‘높은 산은 우러러 보아야하고, 큰 길은 가야하는 것이다.’라는 뜻이다. 중봉선생의 위업을 추앙하고, 그 뜻을 계승해야한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해후광문주(邂逅廣文周)⁵⁶⁾. 주광문(周廣文)을 만났네.
 행치선옹집(幸值仙翁集), 다행히 신선같은 노인들 모여서,
 인휴동자유(因携童子遊). 동자들과 손잡고 노니네.
 유연성일취(悠然成一醉), 유연히 한껏 취해,
 승월보장주(乘月步長洲). 달빛 타고 긴 모래톱 거니네.⁵⁷⁾

위 시의 제목에 술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술했는데, 율원구곡시 제3곡 3,4구의 내용과 부합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아, 정자를 지었던 곳이 정확히 어딘지 알 수 없으나, 이 근처에 정자가 있었다는 점을 확실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송시열은 「이지당기」에서 조헌이 사운시를 지어 그 경치를 찬미했다고 했다. 위 시의 운자(韻字)가 ‘추(秋)’·‘주(周)’·‘유(遊)’·‘주(洲)’ 4개로 되어있다. 위 시에 송근수(宋近洙 1818~1902)·송병선(宋秉璿 1836~1905)·김원행(金元行 1702~1772)등이 차운한 시들을 목판에 새겨놓았다.

제4곡은 창병(蒼屏)⁵⁸⁾이다. 창병은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湫沼里) 부소머니에 있다. 수직의 암벽으로 이루어졌으며, 물굽이가 태극문 중앙분할선(☯)모양으로 감돈다. 수직의 암벽이 800여 m 이상 이어진다. 수면 위로 드러난 높이도 10m 정도는 될 듯하다. 대청댐으로 하부가 수몰되기 전에는 훨씬 높게 드러났을 것이다. 이 암벽 사이사이에 소나무·참나무·갈참나무등이 세월을 안고 서있다. 이들이 조화를 이루어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지금 속칭 ‘벼랑이’라 부른다. 지형 지세를 중시하여 지명을 삼은 것이다.

4곡 창병 인근은 물이 깊어서, ‘깊어서’라 부른다. 맞은 편 부소머니에 거북바위가 있어 가름

55) 제독조(提督趙): 조헌(趙憲) 자신. 43세때 공주교수(公州牧教授) 겸(兼) 제독속교관(提督屬敎官)이 됨.

56) 지금 이지당(二止堂)에 걸어놓은 시판(詩板)에는 ‘초취주광문(樵悴廣文周)’으로 되어있다. 번역은 ‘파리한 주광문(周廣文)’이라 하면 된다.

광문주(廣文周): 광문(廣文)벼슬을 한 주헌민(周獻民)이라는 사람.

57) 조헌(趙憲), 「여이생중철, 산보천상, 적치김생원대승·주헌중헌민, 휴주견방, 승취언지(與李生宗詰, 散步川上, 適值金生員大升·周賢仲獻民, 攜酒見訪, 乘醉言志)」, 『중봉집(中峰集)』 권1, 한국문집총간 54, 민족문화추진회, 1992, 144~145면. 지금 이지당에 걸어놓은 시판(詩板)에는 이 시가 끝나는 바라보는 쪽에서 좌측에, ‘만력(萬曆) 병술(丙戌) 십월망후(十月望後), 여김진사대승(與金進士大升)·주훈도헌민(周訓導獻民)·이수재종철(李秀才宗哲), 동유우서정자하류(同遊于西亭子下流). 우 중봉선생친필(右 中峯先生親筆)’이라 새겨놓았다.

58) 창병(蒼屏): 부소머니 앞을 지나 추동으로 가는 일대. 추소팔경(湫沼八景) 제7경에 소금강(小金剛)이 설정되었다. 우암 송시열이 이 일대를 소금강이라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때 용왕제를 지냈다. 환산(環山)에 용구봉(龍龜峰)과 복호봉(伏虎峯)이 있다. 복호봉(伏虎峯)에 황룡사(黃龍寺)라는 절이 있었다.

제5곡은 동남곡(東南谷)이다. 지금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골냄이'다. '윗골냄이' '아래골냄이'가 있다. 표준말로 '골남이' 즉 '골남쪽= 동남곡구(東南谷口)이다. 창병(蒼屏) 하류 건너편 즉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다. 2006년 3월 22일 수요일 제 4차 답사 때 확인했다. 그때 필자는 유제구(柳濟求 1934년 생) 옥천향토사연구회 회장에게 인근 지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부소동 출신으로 이 인근 지명에 밝혔다. 굽이도는 물가에 골짜기가 아늑하다. 주변에 나즈막한 산이 즉 이어져있어 평온한 느낌을 준다.

제6곡은 문암(門巖)이다. 지금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추동 이탄(梨灘) 연하봉 서당골 강기슭에 있었다. 옥천 구읍에서 고송재를 넘어 석문까지 약 4km이다.

제6곡시에 나오는 '벽만(碧灣)', 즉 '푸른 물굽이'는 구체적인 지명이 아니라 푸른 물결이 구비도는 지형이다. 이런 지형은 지금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 이탄(梨灘)을 가리키는 것이다. 동남곡 하류이다. 지금 대청댐 건설로 수위가 높아져 일정 부분이 수몰되었다. 구비쳐 내려오는 물이 여기서도 태극문양으로 구비쳐 흐른다. 마을 사람들이 평소에는 바지를 걷고 물을 건넜는데 장마가 지면 배를 타고 건너야한다. 원래 '배다리여울'로 '배 주(舟)로 써야하는데 일제강점기에 '배 이(梨)로 써서 '이탄(梨灘)'이라 표기했다. '소소일경석위관(蕭疏一逕石爲關)'이라는 내용이 있다. 대청댐을 건설하기 전까지 존재했었으며, 이 지방에서 석문이라 불렀다. 대청댐 건설당시, 사람들이 석문의 돌을 옮겨가 남아있지 않다.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에 있던 추소팔경의 하나에 '문암독성(門巖讀聲)'이 있다.

제7곡은 은병(隱屏)이다. 지금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梨坪里) 이탄(梨灘)여울에 있다. 은병은 주자의 「무이도가」 7곡 '석당사(石唐寺)'의 '은병'을 원용한 것이다. 따라서 울원구곡 제7곡의 명칭은 '은병'이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 괴산에 있는 유근(柳根 1549~1627)의 고산구곡(孤山九曲) 제 4곡도 '은병'이다.⁵⁹⁾

2006년 3월 22일 수요일 제4차 답사시 현장에 가보았다. 봄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져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시퍼런 물이 굽이도는 아늑한 물가에 수직의 암벽이 병풍을 펼쳐놓은 듯했다. 영문자 'w'의 형상이다.

제8곡은 환산성(環山城)이다. '환산성'은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환평리·추소리·이

59) 이상주(李相周), 「“구곡문화관광특구(九曲文化觀光特區)”와 구곡시 연구(九曲詩 研究)」, 『동서어문연구』 제17집, 청주대학교 동서어문학회, 2001.

평리·증약리·환곡리에 걸쳐 있다. 고리처럼 보인다하여 ‘고리 환’자를 써서 ‘환산성’이라 했다 한다. 세칭 ‘고리산성’이라 부르기도 한다.

환산성은 삼국시대 축조했다. 산의 높이가 581,4m이다. 남북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를 따라 곳곳의 산봉우리에 고리형태의 보루성(堡壘城)을 쌓은 것이 6개이다. 급경사를 이용해서 환산 전체를 요새로 조성했다. 성벽의 높이가 20~30m이며 길이는 1,000m 가량 된다.

제9곡은 ‘삼봉(三峯)’이다. 제9곡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만 5차례 답사했다. 서화천 하류인 지금 충북 옥천군 군북면 용호리 인근으로 여겨진다. 시의 내용으로 보아 ‘삼봉’은 지금 충북 옥천군 안내면에 있는 ‘가산봉(佳山峯)’과 충북 옥천군 안내면 답양리에 있는 태장봉(太將[藏]峯)과 충북 옥천군 군북면 막지리에 있는 고절산(高節山=높은 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9월 10일 일요일 답사하기 전엔, 다음 글에 ‘삼봉’이 보여 그곳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송문흠(宋文欽 1710~1752)의 「선군자호상시후기(先君子湖上詩後記)」라는 글에 ‘삼봉(三峯)’이 보인다. 그 아버지 송요좌(宋堯佐 1678~1723)가 지금 충북 옥천군 군북면 용호리 진걸마을 인근 마을에 거처하게 된 사연을 기록했다. 윗글 서두에 ‘송요좌’가 지은 7언 절구시를 삽입했다. 살펴보기로 하자.

제1구: 삼봉수색은장호(三峯秀色隱長湖), 삼봉의 빼어난 기색 장호(長湖)⁶⁰에 숨겨져있는데,

제2구: 탕탕청파영불고(蕩蕩靑波影不孤). 출렁이는 푸른 물결 그림자 외롭지 않네.⁶¹

이 시는 1722년에 지은 것이다. 제 1구에서 ‘삼봉’이 ‘장호(長湖)’에 비친 모습을 고상하고 운치있게 표현 했다. 제2구에서 ‘장호’의 물결과 물결 비친 산의 그림자가 서로 잘 어울리는 모습을 표현했다.

송문흠의 친형인 송명흠(宋明欽 1705~1768)의 「용호산수기(龍湖山水記)」⁶²를 살펴보자. 송요좌가 위의 시를 지은 연도와 그 큰 아들 송명흠이 「용호산수기」를 지은 연도는 1722년이다. 여기에서도 ‘장호’를 하나의 고유명칭처럼 쓰고 있으며, ‘삼각’이라는 용어가 보인다. ‘삼각’이라는 용어는 글의 내용으로 보아 ‘삼봉’을 달리 표현한 말이다. 그래서 필자는 위의 글들에

60) 장호(長湖): ‘긴 호수’라 우리말로 풀어도 되며, 한자 용어 그대로 ‘장호(長湖)’라는 고유명칭화 된 것으로 보아도 될 것 같다.

61) 송문흠(宋文欽), 『한정당집(閑靜堂集)』, 한국문집총간 225, 민족문화추진회, 1999, 426~427면.

62) 송명흠(宋明文欽), 『역천집(櫟泉集)』, 한국문집총간 221, 민족문화추진회, 1999, 275~276면.

나오는 삼봉이 율원구곡 제9곡시에 보이는 ‘삼봉’과 동일한 지명으로 여겼었다. 그러나 2006년 9월 10일 일요일 현장을 답사한 결과, 동일한 지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사자 전원이 의견일치를 보았다.

참고로 송명흠과 송문흠의 위의 글과 그 문집에 실린 시·문들은, 17·8세기 당시 지금의 ‘진결’ ‘용호’ ‘석호’ ‘막지’ 인근의 실상을 복원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번 답사과정에서 얻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성과이다.

이제껏 율원구곡의 위치와 현장의 풍광을 확인하기 위해 8차례 답사했다. 율원구곡의 위치는 위에 제시한 지점으로 보면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율원구곡의 전체적인 풍광은 어떠한가? 제1, 2곡의 금천계곡과 장용산 일대는 아늑하고 장엄하다. 제3곡 즉 지금 이치당 건물 아래로 물가까지 암반으로 이루어 있으며 물이 고여 있어 잘 조화를 이룬다. 2006년 4월 18일 화요일 답사 때 태봉산(胎封山)에서 율원구곡 제 4~7곡 일대를 내려다보았다. 태봉산은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절골에 있다. 물굽이가 태극문 중앙 분할선(☉)모양으로 몇 구비 휘돌아 흐른다. 높고 낮은 주변의 산들이 서화천을 따라 물가에 솟아있다. 그들이 조화를 이룬 풍광은 ‘별유천지’와 ‘선경’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한다.

중국의 무이구곡은 산세가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졌으며, 웅장하고 거대하여 장엄한 산수미를 느끼게 한다. 율원구곡은 산세가 유연하고 완만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아늑하고 평온함을 주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V. 율원구곡시(栗原九曲詩)의 분석(分析)

이제 율원구곡시의 내용을 분석해본다. 이 시는 주자의 「무이도가」에 차운하여 율원구곡의 아름다운 산수명승을 읊은 시이다. 이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본다. 다음은 서시이다. 원문에 서시라 하지는 않았다.

천성노악비정령(天成老嶽閼精靈), 하늘이 만든 노성산(老城山)⁶³에 정령(精靈)이 숨어 있으며,
악하천류보보청(嶽下泉流步步清). 산 아래 샘물 흘러 한결같이 맑아라.

63) 노악(老嶽): 지금의 노성산(老城山). 국사봉(國師峰), 좌월산(坐月山)이라고 한다. 충북 보은군 회남면 금곡리(金谷里)·노성리(老城里)·신추리(新秋里), 회북면 송평리(松坪里)·수한리(水汗里)·차정리(車井里)에 걸쳐있는 산. 552m.

행도율원기승처(行到栗原奇勝處), 율원(栗原)의 기이하고 아름다운 곳에 도달하니,
무이수속도가성(武夷須續棹歌聲). 모름지기 무이도가 이어보리라.

하늘이 조성한 노악산에 정령이 숨어있으며 산 아래 샘물이 한결같이 맑다. 노악산은 지금 충북 보은군 회남면과 회북면에 걸쳐 있는 노성산이다. 여기에 정령이 숨어있다. 신령한 산이라는 뜻이다. 조현이 거쳐했던 도율리 인근에 있다. 당시 조현이 파놓았다는 샘물이 지금도 남아있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율원의 기이하고 아름다운 곳에 도달하니, 「무이도가」의 노젓는 소리 이어진다고 읊었다. 이는 이곳에 무이구곡처럼 승경지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조현은 율원구곡을 설정하고 율원구곡시를 창작함으로 주자와 같은 생활을 실현하려 했던 것이다. 조현은 서사에서 이런 점을 밝힌 것이다. 율원구곡의 설정은 주자의 학문과 생활면에 대한 숭상심을 자연에 표출한 것이다. 그가 강학소 이름을 후율정사라 한 것은 율곡의 뒤를 잇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렇듯 조현은 주자와 율곡의 학문과 문학을 추앙했다.

다음 제1곡시를 살펴보자.

제1곡 창강(滄江)

일곡창강유소선(一曲滄江有小船), 일곡이라 창강(滄江)에 작은 배 떠있는데,
발원남악작장천(發源南嶽作長川). 남쪽 산에서 발원하여 긴 강을 이루었네.
서귀금록인귀해(西歸錦麓因歸海), 서쪽으로 금록(錦麓)을 돌아 바다로 흘러들어가,
벽랑응통수사연(碧浪應通洙泗烟). 푸른 물결 응당 수사(洙泗)⁶⁴의 안개와 통하네.

제1곡은 창강이다. 지금 충북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일대에 전개된 계곡이다. 남쪽 산에서 발원하여 긴 내를 이루었다. 지금 전북 덕유산에 비롯하여 충남 금산군 서대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가 금천계곡으로 흘러든다. 곳곳에 기암괴석이 여기저기 자리잡고 있으며 소(沼)가 형성되어있다. 이 소에 굳이 배를 띄우려고 맘먹으면 띄울 수 있다.

금록(錦麓)은 금강기슭으로 보인다. 이 금천계곡의 물이 금록을 돌아 서해바다로 흘러들어

64) 수사(洙泗): 수수(洙水)와 사수(泗水). 공자(孔子)가 이 근처에서 제자들에게 도(道)를 가르쳤으므로, 공자의 문하(門下)라는 뜻으로도 쓰임. 수(洙)는 사수(泗水)의 지류. 산둥성 곡부현(曲阜縣)에서 발원하여 기수(沂水)와 합쳐 사수로 들어감. 사(泗)는 사수(泗水). 중국 산둥성(山東省)에서 발원하여 강소성(江蘇省)을 거쳐 회수(淮水)로 흘러가던 강. 지금은 회수로 들어가지 않고 운하(運河)로 들어감. 곡부현에 공자(孔子)의 산소(山所)가 있다.

가서 수수(洙水)와 사수(泗水)의 안개와 통한다. 수수와 사수는 공자가 이 근처에서 제자들에게 도를 가르쳤으므로, 공자의 문하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산둥성 곡부현(曲阜縣)에서 발원하여 기수(沂水)와 합쳐 사수로 들어간다. 사수는 중국 산둥성에서 발원하여 강소성을 거쳐 회수로 흘러가던 강이다. 지금은 회수로 들어가지 않고 운하로 들어간다.

1곡에서는 금천계곡의 물길이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중국에서 발원하는 주수와 사수와 통하는 점을 표명했다. 조현은 율원구곡의 물이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실상을 읊으면서, 자신의 학문이 공자의 학문, 즉 유학을 계승했다는 사실을 내포시켰다.

이번엔 제2곡시다.

제2곡 장현봉(獎峴峰)

이곡초요장현봉(二曲峯嶢獎峴峰), 이곡이라 높디높은 장현봉(獎峴峰),
천암만학담추용(千巖萬壑淡秋容). 수 많은 바위와 골짜기 가을 모습 맑아라.
서대망료인첨북(西臺望了因瞻北), 서대산(西臺山)을 바라보다 북쪽을 쳐다보니,
면상봉래취만중(緬想蓬萊翠萬重). 만 겹의 봉래산(蓬萊山)⁶⁵ 푸른 봉우리생각나네.

제2곡은 장현봉이다. 지금 충북 옥천군 군서면에 있는 마성산과 연결된 한 봉우리를 장용산, 또는 장령산이라고도 부른다. 장현봉은 높고 우뚝하다. 수많은 바위와 무수한 골짜기에 가을빛을 띄었다. 이곳은 서대산을 바라보다 북쪽을 바라보면, 봉래산을 생각나게 하는 곳이다. 서대산은 충북 옥천군 군서면과 충남 금산군 경계에 있는 산이다. 봉래산은 여름의 ‘금강산’을 일컫는 말이다. 북쪽이라는 방향으로 인해, ‘금강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될 듯하다. 이렇듯 장현봉을 보면 금강산이 생각날 만큼 장현봉의 경관이 수려하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다.

본래 봉래산은 신선이 산다는 산으로 동해 바다에 있다 한다. 여름의 금강산을 일컫는 봉래산도 본래 여기서 차용한 것이다. 방장산과 영주산과 더불어 삼신산이라 한다. 이 시에서는 장현봉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금강산과 같을 정도로 경치가 빼어나며, 아울러 장현봉이 신선이 산다는 봉래산만큼 신선경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봉래산을 동원한 것이리라

장현봉 산기슭에 금천계곡 물이 흐른다. 이 계곡은 매우 좁은 골짜기로 이루어졌으며 경관이 아름답다. 장현봉은 지금 장용산이라 부르는데, 등산객이 많이 찾는다. 지금 옥천군 산림휴양소를 조성했다.

65) 봉래(蓬萊): 봉래산(蓬萊山). 여름의 금강산을 일컫는 명칭이기도하다. 동해 바다에 있다는 삼신산(三神山) 중의 하나. 다른 둘은 방장산(方丈山), 영주산(瀛洲山).

제2곡시에서 조현은 장현봉의 산세와 풍광이, 금강산처럼 아름다우며 봉래산처럼 선선경이 라는 점을 읊었다.

제3곡시로 가보자.

제3곡 임정(林亭)

삼곡임정소사선(三曲林亭小似船), 삼곡이라 숲속의 정자 배와 같이 작는데,
일린모옥자하년(一隣⁶⁶)茅屋自何年). 이웃에 띠풀집(초가집) 언제부터 있었나?
인휴조율정신양(人攜棗栗呈新釀), 사람들이 대추와 밤, 새로 담근 술 가져다주니,
노수풍류이역련(老守風流爾亦憐). 늙은 태수의 풍류 그 또한 아름다워라.

제3곡은 임정이다. 이 정자는 배와 같이 작다. 정자가 허공에 떠있는 듯한 장소에 있으며 날 령한 형상을 하고 있다는 표현이다. 이웃에 모옥이 언제부터 있었느냐고 묻는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다. 그 만큼 오래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반어적 표현이다. 주민들이 대추와 밤을 가져 다준다. 거기다가 담근 술을 들고 온다. 이렇게 인심도 좋다. 조현은 산수 좋고 인심좋은 이곳 에서 풍류를 즐기는 것을 노년에 큰 기쁨으로 여긴다. 조현은 3곡시에서 이곳이 산수도 아름답 고 인심도 좋은 곳이라는 점을 읊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조현의 「연보」에 의하면 1591년 48세 때 서정 하류에서 문인 박로(朴 輅)·전승업(全承業)등과 놀았다는 기록이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서정자’터는 지금 충북 옥천 군 옥천읍 서정리이다. 임정은 조현이 지은 정자인지 누가 지은 정자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지금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이지당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제 4곡시를 살펴보기로 하자.

제4곡 창병(蒼屏)

사곡창병대석암(四曲蒼屏大石巖), 사곡이라 창병(蒼屏) 큰 바위로 둘러쌌는데,
암전풍엽영<毛監>참(巖前楓葉影<毛監>參). 바위 앞에 단풍잎 그림자 짙어라.
산용준수무인견(山容峻秀無人見), 산은 높고 빼어나지만 보는 사람은 없는데,
알옥명천형벽담(戛玉鳴泉馨碧潭). 옥소리 나는 샘물(강물) 푸른 연못을 울리네.

66) 일린(一隣): 일린은 다섯 가구로 되어있다. 『周禮』 「地官·大司徒」.

제4곡은 창병이다. 지금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부소머니에 있다. 바위가 푸른 병풍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바위 앞에 단풍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물이 돌아가는 형상이 태극문 중앙분할선(☯)의 구비를 넘어 오에 가깝다. 물가에 수직의 암벽이 800여 m 이상 펼쳐져 있다. 물위로 드러난 높이도 10m 정도는 될 듯하다. 대청댐 건설로 수몰되기 전에는 수 십 m 가 됐을 것이다. 지금 소나무 갈참나무가 암벽 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암석이 기형괴상을 이루고 있다. 산은 높고 빼어나지만 사람은 없다. 물 부딪치는 소리가 옥 부딪치는 소리와 같다. 제4곡시에서는 고즈넉하고 한적한 절경이다. 산과 암벽 그리고 나무와 물이 조화를 이룬 절경을 잘 그려냈다.

제5곡시를 읽어보자.

제5곡 동남곡(東南谷)

오곡동남곡구심(五曲東南谷口深), 오곡이라 동남쪽의 골짜기 입구 깊은데,
의희선려격운림(依僞仙侶隔雲林). 신선의 세계와 닮아 운림(雲林)⁶⁷속에 떨어져있네.
임변유객형용구(林邊有客形容癯), 숲가에 나그네 몸과 얼굴은 가냘퍼도,
산수고가천고심(山水高歌千古心). 산수(山水)속에서 천고심(千古心)을 큰 소리로 노래하네.

제5곡은 동남곡이다. 지금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골냄이’이다. ‘윗골냄이’ ‘아래골냄이’가 있다. 동남곡은 동남쪽의 골짜기로 깊숙하다. 신선의 세계와 닮았다. 이곳의 풍광이 절경이라는 점을 비유한 것이다. 개천가에 아늑한 골짜기가 전개돼있는 곳이다. 숲가에 앉은 나그네 몸과 얼굴은 가냘프다. 그러나 산수 속에서 천고심 즉 불변의 마음을 노래한다. 제5곡시에서는 동남곡이 신선의 세계와 같이 아름다운 곳으로, 불변의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절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6곡시이다.

제6곡 문암(門巖)

육곡송삼호벽만(六曲松杉護碧灣), 육곡이라 소나무 삼나무 푸른 물굽이 감쌌는데,
소소일경석위관(蕭疏一逕石爲關)⁶⁸. 쓸쓸하고 한적한 오솔길 돌이 관문(關門)을 이루었네.

67) 운림(雲林): 높은 구름사이로 솟은 숲이란 뜻으로, 자연(自然) 또는 자연속에 사는 사람을 뜻한다.

창에취벽고천척(蒼崖翠壁高千尺), 푸른 벼랑 비취빛 절벽 높이가 천 자인데,
부앙이유객의한(俯仰夷猶客意閒).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니 오히려 나그네 마음 한가하네.

제6곡은 문암이다. 지금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추동 연하봉 서당골 강기슭에 있었다. 서화천 물가에 바위가 문모양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문암이라 불렀다. 문의 형상을 한 바위가 있고 그 근처에 서당이 있어, 후대에 설정된 ‘추소팔경(湫沼八景)’에 ‘문암독성(門巖讀聲)’이 들어있다. 소나무 삼나무가 푸른 물가에 자라고 있다. 한적한 오솔길이 통하는 길목에 석문이 있다. 푸른 절벽이 천 길이라는 표현은 높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석문과 높은 절벽 그리고 소나무를 바라보는 심정은 한가롭다. 누구나 그런 경치를 보면 그런 기분을 느꼈으리라. 문암은 대청댐을 건설하기 전까지 존재했었다. 대청댐 건설당시, 사람들이 문암 즉 석문의 형상을 이루고 있는 돌을 옮겨가 남아있지 않다.

제6곡사에서 조현은 문암 주변의 한적한 분위기와 그 정경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정감을 그려냈다.

제7곡시이다.

제7곡 은병(隱屏)

칠곡건상도벽탄(七曲褰裳渡碧灘)⁶⁹, 칠곡이라 바지 걷고 푸른 여울 건너며,
은병유곡비회간(隱屏幽谷費回看). 은병(隱屏) 깊은 골짜기 뒤돌아보곤 하네.
인어추우림음심(人語秋雨霖霖⁷⁰甚), 사람들 가을비가 장마비처럼 거세다 말하지만,
아에비천침득한(我愛飛泉添得寒). 나는 날리는 샘물이 더 차겨워져서 좋아라.

제7곡은 은병이다. 지금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 이탄여울 근처에 있다. 여울물을 건너다가 은병 깊은 골짜기를 바라본다. 대청댐이 건설되기 전에 이곳은 바지를 걷고 건널 정도였다.

68) 석위관(石爲關): 대청댐으로 수몰되기 전 석문(石門)이라 불렀다.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추동(湫洞)에 설정된 ‘추소팔경(湫沼八景)’에 ‘문암독성(門巖讀聲)’이 있다.

69) 벽탄(碧灘):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평면(梨坪里) 이탄(梨灘)을 가리킨다. 이탄에서 옥천 구장터로 가는 곳에 있는 여울. 여울 건너 ‘배고개’가 있음. ‘배일, 배여울’이라 부른다. 유제구(柳濟求) 옥천향토사연구회회장은 ‘비가 오지 않으면 걸어서 여울을 건너고, 비가 오면 배를 타고 건넌다.’라고 전해주었다. 금기(琴基) 전(前) 농협대 교수는 ‘대청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바지를 걷고 개울을 건넌다’고 당시의 정황을 전해주었다. 원래 ‘배다리여울’인데 일제강점기에 ‘배 주(舟)’로 써야하는데 ‘배 이(梨)’로 써서 이탄(梨灘)이라 표기했다. 지금 대청댐 건설로 수몰되었다.

70) 임음(霖霖): 장마비.

바위절벽이 병풍을 펼쳐놓은 것 같다.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병풍 같다 하여 은병이라 했다. 본래 병풍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지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가까이 둘러치고 감상하는 예술 품이다. 아름다움의 비유적 표현으로 쓰였다. 병풍에 비유했으니 그 풍광의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2006년 3월 22일 수요일 제4차 답사 때 현장에 가보았다. 수위가 낮아져 윤곽이 어는 정도 들어났다. 수직의 암벽이 병풍을 펼쳐놓은 듯했다. 영문자 ‘w’를 세로로 두세 개 겹쳐놓은 형상이다.

보통 사람들은 장마비가 거세다고 다소 불만이다. 그러나 조현은 이 강물이 시원해서 좋고 긍정적으로 본다. 이 시에서 조현은 시냇물의 청냉함과 병풍같은 절벽의 조화미를 예찬했다.

제8곡시이다.

제8곡 환산성(環山城)

팔곡궁림안활개(八曲穹林眠豁開), 팔곡이라 높은 숲 눈앞이 탁 트였는데,
강만요곽수동회(岡巒寥廓水東廻), 높은 산의 고요한 성곽 물은 동쪽으로 감도네.
추원희문경운수(秋原喜問耕雲叟), 가을 언덕에서 구름을 갈고있는 노인에 기쁘게 물으니,
위도이삼가객래(爲道二三佳客來), 두 셋 멋진 손님이 와계신다 말하네.

제8곡은 환산성이다. 지금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와 환평리에 걸쳐있다. 산에 고요한 성곽이 자리 잡고 있으며, 물이 동쪽으로 감돈다. 성곽이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 환산성 일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돌아가는 강줄기와 강가에 펼쳐진 오밀조밀한 산세가 장관이다.

가을이 깊어가는 언덕에서 구름을 갈고 있는 노인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 구름을 갈고 있는 노인이라는 표현에서 이곳이 인간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두 사람의 가객이 와있다. 이들도 이미 속세의 사람은 아니다. 여기가 비속세이기 때문이다. 산수의 선취적 형상이 신선 세계와 같다는 것을 강조했다.

조현은 제8곡시에서 구름 속에 솟아있는 환산성의 신비로운 모습을 잘 그려놓았다.

다음은 제9곡시이다.

제9곡 삼봉(三峯)

구곡삼봉대숙연(九曲三峯對肅然), 구곡이라 삼봉(三峯)을 숙연하게 대하는데,
원산서무격남천(遠山西驚隔南川), 먼 산이 서쪽으로 내달려 남쪽 시내와는 막혔네.

암송계류장신항(巖松溪柳莊新巷), 바위의 소나무 시냇가 버들 새 동네를 단장하니,
과시진환별개천(果是塵寰別箇天). 과연 여기가 속세의 별천지(別天地)로다.

제9곡은 삼봉이다. 지금 군북면 추소리 하류 어느 지점이다. 율원구곡 중 마지막 절승이다. 삼봉은 숙연한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는 곳이다. 먼 산은 서쪽으로 내달리는 형상이며, 남쪽에 있는 하천과 막혔다. 이곳의 산수자연은 인간의 심성을 순화시켜주는 현장이다.

이곳은 바위 틈 사이에 소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버드나무가 무성하다. 조현은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와 버드나무를 보면서, 그와 관련된 고사와 상징성을 연상하면서 시를 구상했을 것이다.

『태평광기(太平廣記) 권 16, 「속현괴록(續玄怪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두자춘(杜子春)은 도사인 노인을 만나 몇 차례 재정적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그는 이 노인에게 보답하기 위해 만난다. 모든 일을 끝내고 약속한 날에 찾아갔다. 두자춘은 두 그루의 노송나무가 있는 곳에서 만나기로 했다. 노인과 함께 오른 화산(華山)은 섬서성에 있는 명산으로, 갈홍(葛洪)이 선도수련의 적격지로 첫 번째 꼽았던 명산이다. 과연 그곳엔 채운(彩雲)이 멀리 드리우고, 경학(驚鶴)과 약로(藥爐) 주위에 옥녀(玉女)가 아홉 명이나 있었다. 그리고 청룡과 백호(등이 전후에 있다.⁷²⁾ 이렇듯 소나무는 십장생의 하나이며, 소나무가 있는 곳엔 선경도 존재하는 것으로 여겼다.

또한 소나무는 절의의 상징으로 표현되어 왔다. 논어 「자한(子罕)」 “세한연후(歲寒然後), 지송백후조(知松柏後彫).”라는 구절이 이를 명증한다. 즉 선비는 궁할 때 절의를 알 수 있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 충신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듯 소나무는 장수와 절의의 상징이다. 여기서도 그런 의지를 내재시키고 있어 소나무를 관심 있게 시에 끌어들인 것 같다.

버드나무도 자연식물 그 자체이지만 도연명의 「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에 나오는 분위기

71) 계류(溪柳): 지금 충북 옥천군 군북면 용호리(龍湖里) ‘버들개’라는 지명이 있다. 강가에 버드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버들골’은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에 있다. 두 마을을 오고갈 때, 두 마을 사이에 있는 작은 고개로 넘어다닐 경우 약 500m 정도의 거리이다. 강가로 갈 경우는 약 1.5 km정도 된다. 버들개에서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 백련봉(白蓮峯)=백화산(白華山)=백토산(白土山)까지는 약 1km정도 된다.

72) 李昉 外, 김장환 外 옮김, 「續玄怪錄」, 『太平廣記』권16. 학고방, 2000, 426면. 既畢事, 及期而往. 老人者方嘯于二檜之陰. 遂與登華山雲臺峯, 入四十里餘, 見一處, 室屋嚴潔, 非常人居. 彩雲遙覆, 驚鶴飛翔其上. 有正堂, 中有藥爐, 高九尺餘, 紫焰光發, 灼煥窗戶. 玉女九人, 環爐而立, 青龍白虎, 分據前後. 其時日將暮, 老人者不復俗衣, 乃黃冠絳帔土也. 회(檜)는 전나무, 또는 노송(老松)이라 한다. 내용상 노송(老松)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를 의중에 두고 시어로 채택한 듯하다. 제4구는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의 내용을 시화한 이백의 「산중답속인(山中答俗人)」에 나오는 “도화류수묘연거(桃花流水杳然去), 별유천지비인간(別有天地非人間)”를 염두한 표현이다. ‘복숭아꽃이 물에 아득히 흘러가는데, 별천지가 있어 인간세상이 아니더라.’라는 뜻이다. 주자 역시 「무이도가」 제9곡에서 이런 시의(詩意)를 담아냈다.

이렇듯 조현은 제9곡을 신선이 사는 별천지로 간주한 것이다.

VI. 맺 음 말

조현은 1584년 41세 때 율원구곡시를 창작했다. 율원구곡은 옥천군내 유일의 구곡이며, 율원구곡시는 옥천군내 유일의 구곡시이다. 그러나 그는 9곡의 명칭이나 9곡의 위치를 기록해놓지 않았다. 지금껏 학계에서는 그 구곡의 명칭과 위치를 추적 확인하여 고증해놓지 않았다. 율원구곡시에 대해서 전 농협대 금기교수가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다. 지금까지 필자는 앞의 명단에서 밝힌 답사단과 함께 시의 내용을 토대로 총 8차례 현지를 답사했다. 그 결과 율원구곡은 지금의 서화천 약 60리간에 걸쳐 설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내가 겹겹이 산으로 싸인 계곡 사이를 구비 돌아 아늑하며 포근한 느낌을 준다. 곡선의 물길이 유연하여 인간의 심성을 편안하게 해준다.

「유율원차무이도가운(遊栗原次武夷棹歌韻)」의 내용과 현지의 지형과 지명을 감안하여 추적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율원구곡을 비정할 수 있다. 제1곡은 창강, 제2곡은 장현봉, 제3곡은 임정, 제4곡은 창병, 제5곡은 동남곡, 제6곡은 문암, 제7곡은 은병, 제8곡은 환산성, 제9곡은 삼봉이다.

조현의 율원구곡시는 주자의 「무이도가」의 운에 차운하여, 지금 충북 옥천군 서화천 일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읊었다. 율원구곡이 선경과 같은 절경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봉래산, 선려, 경운수 등 신선과 관련있는 용어를 사용했다. 또한 이백의 「산중답속인」과 주자의 「무이도가」 9곡에 보이는 “별천지”라는 용어를 원용했다. 이는 율원구곡의 산수풍광이 매우 수려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표현들이다. 율원구곡시는 시의 내용이나 표현상으로 볼 때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다.

중국의 무이산시(武夷山市)는 1998년 7월 중국에서 첫번째로 ‘우수관광도시’로 선정되었으며, 2000년에는 ‘4A급관광구역’으로 선정되었다. 1999년 12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어 현재까지 중국에서 네 번째로 ‘문화와 자연 복합유산’으로 지정받았다. 2003년에는 ‘중화십대명산’과 ‘중국 차 문화예술의 고향’으로 선정되었다. 이렇듯 중국인들은 무이산과 구곡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화하고 관광자원화를 달성했다. 우리도 산수자연과 조화를 이룬 구곡문화를, ‘문화산수’로 선정하고 개발 홍보하여, 구곡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화 여건을 마련해야한다.

율원구곡은 구곡문화의 한 현장이다. 율원구곡이 무이구곡처럼 웅장하고 험준하지는 않다. 율원구곡은 물굽이가 태극문 중앙분할선(☯)모양으로 몇 구비 휘돌아 흐른다. 높고 낮은 주변의 산들이 서화천을 따라 물가에 솟아있다. 그들이 조화를 이룬 풍광은 ‘별유천지’와 ‘선경’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자연 산수미 감상과 구곡문화 이해의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 축조한 환산성과 백제의 성왕(?~554)이 전사한 곳으로 전해지는 ‘구진벼루’가 율원구곡권에 있다. ‘향수’의 시인 정지용(鄭芝溶 1902~1950?)의 생가가 옥천읍내에 있다. 정지용생가를 둘러보고 율원구곡 제1곡 ‘창강’을 유람한 후, 환산성에 올라 성을 답사하면서 눈 아래 전개되는 율원구곡 제4곡 ‘창병’일대를 감상해보라. 하산하여 배를 타고 나머지 구곡을 유람해보라. 환상적이라. 이렇듯 조현의 율원구곡과 율원구곡시 그리고 정지용의 시를 감상하고, 유서깊은 역사유적을 답사하면, 문화관광시대에 ‘구곡문화’와 더불어 효율적인 문화관광을 즐길 수 있다.

【參考文獻】

김정연(金鼎淵), 『소화집(少華集)』.
 송명흠(宋明文欽), 『역천집(櫟泉集)』, 한국문집총간 221, 민족문화추진회, 1999.
 송문흠(宋文欽), 『한정당집(閑靜堂集)』, 한국문집총간 225, 민족문화추진회, 1999.
 송시열(宋時烈), 『송자대전(宋子大全)』, 한국문집총간 113, 민족문화추진회, 1995.
 조현(趙憲), 『중봉집(中峰集)』, 한국문집총간 54, 민족문화추진회, 1992.
 조현(趙憲) 저, 변형석(卞亨錫) 역주, 『완역 중봉시 역주(完譯 重峰詩 譯註)』, 중봉 조현선생 기념사업회, 2004.
 김학동(金學東), 『정지용 연구』, 민음사, 1987.
 정지용(鄭芝溶), 『정지용시집』, 기민사, 1987.
 『국역 신증 동국여지승람(國譯 新增 東國輿地勝覽)』, 민족문화추진회, 1971.
 『호서읍지(湖西邑誌)』, 규장각, 아세아문화사, 1984.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 국립중앙도서관, 아세아문화사, 1984.
 이병연(李秉延),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1935.
 이방(李昉) 외, 김장환 외 옮김, 『태평광기(太平廣記)』, 학고방, 2000.

- 금기(琴基), 「중봉(重峯) 조헌(趙憲)선생이 후율정사(後栗精舍)에서 읊은 율원구곡시(栗原九曲詩)의 새로운 음미」, 『문화관광부 선정 2004년 9월의 문화인물 중봉 조헌선생의 생애와 정신문화의 재조명』, 중봉 조헌선생 정신문화 선양추진회, 2004년.
- 김용덕(金龍德), 「중봉 조헌 연구(重峰 趙憲 研究)」, 『조선후기사상사연구』, 을유문화사, 1977.
- 박병헌(朴炳憲), 「중봉 조헌(重峰 趙憲)의 시세계」, 동국대 석사논문, 1991.
- 송재소(宋載劬), 「응와(凝窩) 이원조(李元祚)의 포천구곡차무이도가(布川九曲次武夷棹歌)에 대하여」, 『한국의 경학과 한문학(죽부(竹夫) 이지형교수(李旒衡教授) 정년퇴직 논총)』, 태학사, 1996.
- 이동준(李東俊), 「중봉 조헌(重峰 趙憲)의 역사 의식과 국방대책」, 『동대논총』 제6집, 동덕여자대학, 1976.
- 이석린(李錫麟), 「중봉 조헌 연구(重峰 趙憲 研究)」, 경희대 박사논문, 1984.
- 이석린(李錫麟), 『임란 의병장 조헌 연구(壬亂 義兵將 趙憲 研究)』, 신구문화사, 1994.
- 이상주(李相周), 「구곡시(九曲詩)의 전통(傳統)과 화양구곡시(華陽九曲詩)」, 『교육과학연구(教育科學研究)』 제13집, 청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9.
- 이상주, 「같은구곡(葛隱九曲)과 같은구곡시(葛隱九曲詩)」, 『한문학보(漢文學報)』 2집, 우리한문학회, 2000.
- 이상주, 「같은구곡(葛隱九曲)과 같은구곡시 연구(葛隱九曲詩研究)」, 『괴향문화(槐鄉文化)』 제7집, 1999.
- 이상주, 「노성도(盧性度)와 연하구곡가(烟霞九曲歌)」, 『한문학보』 4집, 우리한문학회, 2001.
- 이상주, 「노성도(盧性度)와 연하구곡가(烟霞九曲歌)」, 『괴향문화』 9집, 괴산향토사연구회, 2001.
- 이상주, 「낙우당구곡(樂愚堂九曲)과 낙우당구곡시(樂愚堂九曲詩)」, 『교육과학연구』 제15집 제2호, 청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1.
- 이상주, 「괴산군(槐山郡) 선유동(仙遊洞)의 전설적(傳說的)·선취적(仙趣的) 인물 이녕(李寧)의 가계와 생애」, 『중원문화논총(中原文化論叢)』 제5집,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1.
- 이상주, 「선유구곡(仙遊九曲)과 선유구곡시(仙遊九曲詩)」, 『개신어문연구(開新語文研究)』 제18집, 충북대학교 개신어문학회, 2001.
- 이상주, 「옥화구곡(玉華九曲)과 옥화구곡시(玉華九曲詩)」, 『충북학(忠北學)』 제3집, 충북학연구소, 2001.
- 이상주, 「“구곡문화관광특구(九曲文化觀光特區)”와 구곡시(九曲詩) 연구(研究)」, 『동서어문연구(東西語文研究)』 제17집, 청주대학교 동서어문학회, 2001.
- 이상주, 「홍치유(洪致裕)의 선유구곡시(仙遊九曲詩)」, 『충북작가(忠北作家)』 2002년 여름호, 2002.
- 이상주, 「‘서계구곡(西溪九曲)’과 ‘서계팔영(西溪八詠)’시(詩)」, 『교육과학연구』 제15집 제2호, 청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2.
- 이상주, 「‘선유팔경(仙遊八景)’의 ‘화양구곡(華陽九曲)’·‘선유구곡(仙遊九曲)’에로의 분화변천과정과 기타 관련 문제」, 『중원문화논총』 제6집,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2.
- 이상주, 「선유팔경(仙遊八景)과 선유구곡(仙遊九曲)에 대한 고찰」, 『한문학보』 제 7집, 우리한문학회, 2002.
- 이상주, 「같은구곡(葛隱九曲)의 설정자와 설정연대 및 같은구곡시(葛隱九曲詩)의 작자」, 『동서어문연구』 제18집, 청주대학교 동서어문학회, 2003.
- 이상주, 「쌍곡구곡(雙谷九曲)과 관련(關聯) 시(詩)·문(文)에 대한 고찰」, 『동방한문학(東方漢文學)』 제26집, 동방한문학회, 2004.
- 이상주, 「정재응(鄭在應)의 쌍계구곡(雙溪九曲)과 쌍계구곡시(雙溪九曲詩)」, 『청대학술논집(淸大學術論集)』 제3집,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2004.
- 이상주, 「“구곡문화관광특구(九曲文化觀光特區)”와 그 구곡(九曲) 설정자들의 학맥(學脈)」, 『중원문화논총』 제

中原文化論叢 10輯

9집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5.